

2001년도 제2차 대표자회의

2001. 9.21(금) 오후 3시

(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3층(120-012)

전화: 365-4016, 392-5252, 팩스: 365-4017

전자메일: jdih@peacenet.or.kr

홈페이지: <http://witness.peacenet.or.kr>

2001년도 제2차 대표자회의

◎ 일시: 2001년 9월 21일(금) 오후 3시

◎ 장소: 정대협 교육관(기사연 3층)

◎ 참석대상(가나다 순)

실행위원:

공동대표: 김운옥(상임), 지은희, 정진성

실행위원: 고혜정, 김신실, 신혜수, 윤순녀, 정태효, 조시현, 최만자, 한국염, 양미강

회원단체:

KNCC여성위원회, ZONTA, 감리교여교역자회, 감리교여선교회, 기독교민회, 기장여교역자회, 기장여신도회,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여성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예장여교역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정신대연구소, 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21개 단체)

2001년도 제2차 대표자회의

사회 / 김윤옥 상임대표

1. 회원점명 / 서기
 2. 개회선언 / 사회자
 3. 전 회의록 낭독 / 서기
 4. 사업보고
 - 1) 실행위원회 보고 · 2
 - 2) 상임위원회 보고 · 8
 -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신혜수) · 8
 - 생존자복지위원회(위원장 김신실) · 9
 - 홍보출판위원회(위원장 최만자) · 20
 - 아시아연대위원회(위원장 윤순녀) · 21
 - 법률위원회(위원장 조시현) · 27
 - 3) 병설 / 전쟁과 여성인권센터(소장 김윤옥) · 29
 - 4) 연대활동 보고 /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 38
 - 5) 사무처 보고 · 40
 - 6) 공문수·발신 · 43
 - 7) 주요성명서 · 46
 5. 안건토의 :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
 6. 기타안건
 7. 알림
 8. 회의록 발음
 9. 폐회
- 별첨자료 / 2001년도 회계보고(200.1-7)

【알림】

1. 2000년법정 헤이그 최종판결
일시: 2001.10.22-23
장소: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궁전
2. 한일여성 공동역사교재 편찬을 위한 심포지엄
일시: 2001.10.5
장소: 연세대 상남관
3.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발족 국제심포지엄
일시: 2001.12.10(예정)
장소: 프레스센터(예정)

【실행위원회 보고(2001.1-8)】

1. 2001년도 1차 대표자회의 보고

일시 : 20001년 2월 22일 오후 4시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사업보고 : p98까지의 보고로 하니 박수로 받다.

감사보고 : 성명옥 감사가 p106과 같이 보고하다.

결산보고 : 동의 양희옥(장상연합회), 재청 김은주 (교회여성연합회)로 받되, 앞으로는 예산 보다 초과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경을 하여 결산을 하기로 하다.

안전토의 :

1. 2001년도 이후 정대협 운동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하다.

2. 조직 개편 및 정관 개정은 다음과 같이 인준하다.

1)조직 개편안을 그대로 받다.

공동대표 / 김윤옥, 지은희(유임), 정진성

서기 / 한국염(유임)

부서기/ 정태효(유임)

생존자복지위원회/ 김신실(유임)

홍보출판위원회/ 최만자(유임, 이동)

아시아연대위원회/ 윤순녀(유임, 이동)

국제협력위원회/ 신혜수(유임)

재정위원회/ 미정

법률전문특별위원회/ 미정

전쟁·여성·인권센터/ 소장 김윤옥, 부소장 정진성

감사/ 성명옥(유임), 윤영애(신임)

2)기구개편에 따른 정관 개정은 다음과 같이 하다.

- 7장 부설기관으로 “가칭 전쟁·여성·인권센터를 둔다”로 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헌장은 실행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 회칙과 법인 정관을 분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항과 문구로 이후 실행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3. 실행위원은 다음과 같이 인준키로 하다.

공동대표 : 김윤옥, 지은희, 정진성

상임대표에 김윤옥

4. 2001년도 사업을 원안 대로다음과 같이 받다.

김정수, 성명옥 재청

5. 2001년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받다. (양희옥, 김정수)

6. 일본 교과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내기로 하다.

7. 수요시위나 연대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회원교섭을 하기로 하다.

2. 2001년도 3월 실행위원회 보고

일시: 2001. 4. 6 (금) 오전 10시

장소: 정대협 교육관

참석: 김윤옥, 김신실, 최만자, 정태효, 윤순녀, 고혜정

위임: 신혜수(외국), 지은희, 한국염

사회: 정진성 공동대표

1. 추가보고 사항

- 1) 2000년법정 최종판결을 위해 한국측에서 최종 메일을 보냈음을 보고하다
 - 6월 첫째주에 개최하는 안
 - 준비를 위해 실무자를 파견하기 어렵다는 내용
 - 한국은 북한의 참가자들을 위해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
 - 노비브에 직접 펀드 규모를 물어보겠다는 내용
 - 헤이그가 어려우면 뉴욕에서 개최하는 방법
- 2) 아시아연대위원회 히로시마 재판은 250명이 모였으며, 기각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하고 일본의 입법운동을 지원하기로 하다.
- 3) 전쟁과 여성인권센터는 위원장에 김윤옥 대표, 부위원장에 정진성 대표가 맡기로 하다.

2. 결의사항

- 1) 정관에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현 지은희, 신혜수 선생님은 유임하기로 하고, 정진성, 김신실, 김윤옥, 윤순녀를 신규로 법정 이사로 신청하기로 하고 대표이사로 김윤옥 상임대표로하기로 하다.
- 2) 윤정옥 전 공동대표 퇴임식은 5월 1일에하기로 하고 약 100명 규모로 하며 감사장 수여 및 퇴임강연을 하는 것으로 하다. 나머지 실행위원 퇴임은 적당한 시기에 식사모임으로하기로 하다.
- 3) 미네소타 한미 오늘과 내일센터에서 제안한 정대협 활동을 위한 후원회 및 워크샵 및 강연은 5월 준비모임은 가지 않기로 하고 9월 강연회에 윤정옥 전 공동대표와 양미강 총무가 참여하기로 하다. 한미센터가 제안한 대외적으로 윤정옥 선생님의 공동대표직 유지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 공동대표 직함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 4) 강제동원에 관한 진상규명특별법은 정대협 개별법안을 내기 보다는 통합안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로 하다. 이 통합안에서 위안부 문제가 부각되도록 하여 제목에 강제동원을 위한 '위안부' 및 강제징용을 삽입하기로 하다. 이것을 위해 인권센터와 연구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진성, 고혜정 선생이 담당하기로 하다.
- 5) 2000년법정 최종판결은 헤이그가 어려운 경우 뉴욕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IOC공동대표와 각나라 검사 1명이 참여하는 최소단위로 진행하기로 하다.
- 6)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한일간의 공동연대를 강화하기로 하고 5.1 도쿄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참여하기로 하다.
- 7) 나눔의 집에게 회원단체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4월 실행위원회 이후 간담회를 갖기로 하다.
- 8) 일본과 의논을 하여 6차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다. 또 중국과 다각적인 채널을 만들기로 하다.
- 9) 고혜정 선생이 할머니 인터뷰차 중국을 방문하는 중에 동북지역 홀로강성에 사시는 5명의 할머니(김순옥, 이수단, 이광자, 박서운, 또 한명)에게 중국돈 300위안, 한화 5만원씩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혜정선생이 전달하기로 하다.
- 10) 수요시위시 심미자 할머니가 발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고 발언순서를 두기로 하고

사무국에서 통제하기로 하다

3. 2001년도 4월 긴급실행위원회 보고

일시: 2001.4.20(금) 오후 2시

장소: 정대협 교육관

참석: 김윤옥, 지은희, 김신실, 정태효, 고혜정,

위임: 정진성, 최만자, 신혜수, 한국염, 윤순녀,

사회: 김윤옥 상임대표

보고: 중국방문 보고를 고혜정 실행위원으로부터 받고 다음 실행위원회에 중국에 계신 한국 할머니 문제에 관한 정책토론과 지원네트워크 구성을 논의하기로 하다.

결의사항:

1. 일본교과서 왜곡에 관련한 일본시위를 조직하여 4월 25일부터 5월2일까지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김윤옥 대표, 지은희 대표, 양미강 총무, 황금주 할머니, 김은례 할머니가 참여하기로 하고 시위참가비용 약 450만원은 복지위원회에서 지출하기로 하다. 향후 교과서 문제와 정대협 운동에 관한 투쟁방향을 일본정부에 대해서 재검정 요구, 일본국회에 대해서 특별법 제정운동, 일본시민단체에 대해서 재검정과 교과서 불채택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하다. 또 위안부 관련 망언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기로 하다.
2. 일제하 강점피해에 관한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공청회 토론자로 정진성 교수를 추천키로 하다.
3. 교과서 운동본부에서 제안한 사무국을 정대협이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하고 간사단체를 순환하기로 하는 방식을 운동본부에 제안하기로 하다.

4. 2001년도 5월 실행위원회 보고

일시: 2001.5.28(금) 오후 4시

장소: 정대협 교육관

참석: 김윤옥, 지은희, 김신실, 윤순녀, 고혜정, 최만자

위임: 정진성, 신혜수, 한국염, 정태효, 조시현,

사회: 지은희 공동대표

결의:

1. 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아시아연대회의(2001.6.9-13)에 김윤옥 상임대표, 지은희 공동대표, 김신실 복지위원장, 양미강 총무, 강순애 할머니가 참여하기로 하고 비용은 경상비에서 지출하기로 하다. 다음 국제회의에는 참가자 리스트를 선정하여 꼭 참석해야 할 사람과 실행위원을 포함하여 순환하기로 하다.
2. 아리미츠 켄이 요청한 위안부 관련보상법안 활동을 위한 일본방문 요청(2001.6.4-6)에 대해, 이 회의와 연이어 있는 아시아연대회의가 정대협이 제안하여 성사된 것으로 정대협은 부득이 아시아연대회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없음을 정중하게 통보하기로 하다.
3. 여성부 지원, 할머니 치료종합 프로그램에 대해 컨소시엄 형태보다는 총 사업비 9300만원 중 정대협은 5000만원 가량의 사업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중국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인권센터의 사업으로 하되, 연구소와 협의하여 사업안을 제출하기로 하다.

4. 행자부 지원, 사이버 인권자료실 구축을 위해 책임주체를 인권센터로 하고, 팀장을 정진성 공동대표가 하기로 하다. 이 팀에게 전체 진행스케줄 및 예산을 다음실행위원회에 올리도록 하다.
5. 현재 진행되는 미국의 위안부 관련 소송을 위해 외교통상부에게 1965년 한일협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요청하기로 하다.
6.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안한 (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규명연대를 위한 구성제안에 대해 상설조직보다는 진상규명법안을 통과하는 시기까지 한시별 과제별 조직으로 다시 제안하기로 하다.
7.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도쿄 6.12 세계행동의 날에 일본과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단순참가하기로 하고, 운동본부의 참가회비는 10만원으로 하다.
8. 2000년법정 한글비디오 제작은 현재 안해룡씨가 추진중인 KBS, 열린채널에 출품하는 국제법정 비디오를 정대협이 제작하는 것으로 하고, 비디오 제출 전에 실행위원회에서 시사하기로 하고, 제작비 내규를 문서화하여 조건을 계약하기로 하며, 대표단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9.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약 200만원 수준에서 구입하기로 하다.
10. 시민운동지원기금에서 수여한 2001년 시민운동상 수상기금 500만원은 교육관기금에 적립하여 영구기념하기로 하다.
11. 윤정옥 선생님을 명예대표로 추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5월 31일에 있는 실행위원과의 식사모임에서 10만원 한도내에서 윤정옥 선생님과 이효재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기로 하다.
12. 아리미즈 켄이 제안한 남-북-일 전후보상네트웍을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하다.

5. 2001년도 6월 실행위원회 보고

일시: 2001.6.29(금) 오전 10시

장소: 정대협 교육관

참석: 김운옥, 정진성, 김신실, 정태효, 한국염, 양미강

위임: 최만자, 신혜수, 지은희, 윤순녀, 고혜정, 조시현

사회: 김운옥 상임 대표

결의사항:

1. 할머니와 관련된 정책 수립(중국피해자 지원을 포함한)의 건은 정대협 실행위원회와 연구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리하기로 하고, 간담회 참석인원에 윤정옥, 고혜정, 신영숙 등 연구소 관계자와 실행위원 전원이 참가하도록 한다.
2. 정신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재가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은 정대협이 진행하는 전체 프로그램 속의 한 부분을 맡는 것으로 하고, 어떤 원칙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의 부분은 통일된 원칙을 갖고 진행하기로 한다.
3. 각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하다.

- 1) 할머니 심리치료를 비롯한 할머니 종합 지원프로그램은 생존자복지위원회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하다.

[전문가위원회] : 연구 및 임상

권희순(갑신대 강사): 팀장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양현아(동국대 사회학과 강사)
전우택(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
이철원(아이맘 연구소 소장)
박애선(상담과사회 연구소 소장)
문은희(알트루사 여성상담소 소장)

[각 지역별 전문가]

[협력팀] : 실제 상담에 있어 조력자로 활동가능

이지예(노인복지)

이정현(연세대 의대 레지던트, 여성정신상담)

[지원팀] : 워크샵 등 이론개발에 있어 강사로 활용가능

채규만(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 성폭력피해자)

변주나(전북대 간호학과 교수, 간호인류학)

오수성(전남대 심리학과 교수, 5.18관련 집단심리)

[실무팀]

양미강(정대협 총무), 진현정(정대협 간사), 각 지역 단체 실무자들

2) 사이버 여성인권자료실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위원장] : 정진성 공동대표

[전문가위원회]

교안개발위원: 최종순(남성초 교사, 초등학교), 최현삼(중앙고 교사, 중고등학교)

자료위원 : 김은식(태평양보추위 사무국장), 이춘실(숙대 도서관학과 교수),

오카베 토시오(경기대 박사과정)

영상위원 : 안해룡(아시아프레스 대표), 한원상(YTN 기자)

기술위원 : 이성구(디자인정글, 웹디자인), 천영철(기독교네트웍, 서버),

이철용(동영상)

5. 전쟁과 여성인권센터(가칭) 발족 국제심포지엄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하다.

1) 주제: 전쟁범죄와 여성인권

2) 일시 : 2001년 11월 중

3) 기금 : Global Women's Fund의 프로젝트 1500만원

4) 내용 :

[오전]

- 주제강연 / 친킨 혹은 패트리샤 "전쟁범죄와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 발표1 / 뉘른베르그 재판에서의 여성인권

- 발표2 / 동경재판에서의 여성인권(일본)

[점심]

[오후]

- 구 유고법정

- 2000년법정

- 전쟁과 여성폭력: 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하되 한국의 전쟁범죄

- 종합토론

6. 혜진스님과 관련하여 일본의 우익들이 마쵸이 야요리에 대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대협은 입장표명을 하기로 하고, 그 내용은 '유감이다, 개인의 문제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수준으로 하기로 하고, 문장은 상임대표와 총무에게 일임 하기로 하다. 별첨자료로 성폭력상담소 성명서를 일본에 보내기로 하다.
7. KBS의 8.15특집 관련 협조요청은 공문대로 황금주 할머니와 양미강 총무가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일본 현지 촬영에 참여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
8. 일본 바우넷 제팬, 2000년법정 영어비디오 제작비 8500불 중 분담요청의 건은 공동대표들이 비디오를 시사한 후 결정하기로 하다.
9. 8.15 특별공연(8.13),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는 정대협이 주최하고 실험독립 만세가 주관하기로 하고, 실비를 제외한 전액은 기증받기로 하다

6. 2001년도 8월 실행위원회 보고

일시: 2001.8.23(목) 오전 10시30분

장소: 정대협 교육관

참석: 김운옥, 김신실, 정태효, 양미강

위임: 지은희, 정진성, 최만자, 고혜정, 조시현, 윤순녀, 한국염, 신혜수,

사회: 김운옥 상임대표

결의사항:

1. 10월 22일에서 23일에 열리는 헤이그 최종판결에 북한측 관계자 4명에 관한 경비를 정대협이 지원하기로 하고 팩스를 보내기로 하다. 남북공동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미리 헤이그에서 만나는 것으로 하다. 북측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독일측에 협조요청을 확인하기로 하다. 최종판결에 참여할 사람에게는 50%의 경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공동대표단에 일임하기로 하다.
2.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건립을 위해서 건립안을 그대로 받기로 하고, 정부에 제안서를 발송하기로 하다.
3. 제2회 할머니와 함께 하는 인권캠프에 실행위원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실행위원은 제주도 비행기값을 부담하기로 하다. 실무자들은 전원 참여하도록 하다.
4. 할머니의 진위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더 이상 정대협 차원에서는 하지 않기로 하다.
5. 미국 IVY LEAGUE 대학 초청, 할머니 증언집회 참석요청은 김신실 복지위원장이 동행하기로 하고, 할머니는 더 연구해서 결정하는 것을 김신실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6.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사항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가입하기로 하다.
7. 대표자회의는 9월중에 소집하기로 하다.
8. 회계 결제라인을 생존자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의 결제를 받기로 하고, 센터는 소장의 결제를 받기로 하다.
9. 인터넷 방송국 HOOZ에서 요청한 할머니 영상자서전 촬영에 응하기로 하되, 계약서를 저작권 공유부분과 자료 공유를 분명히 명시하기로 하다.

【상임위원회 사업보고(2001.1-8)】

▶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 신혜수)

【유엔활동】

1.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보고서 발송(3.21)

내용 : 1997년 이후 '위안부'문제해결에 관한 동향 및 자료 보냄

2. 3.8 유엔 여성대회 참석(3.5-3.15)

장소: 뉴욕 유엔본부

참석자: 지은희 대표, 신혜수 위원장, 황금주 할머니, 진현정 간사

3. 유엔인권위원회 참석(4.6-4.13)

장소 : 스위스 제네바

참석: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

내용: 교과서와 '위안부'문제에 관련한 NGO 발언 및 포럼개최

4. 유엔인권소위원회 참석(7.27-8.16)

장소 : 스위스 제네바

참석 : 정진성, 조시현

내용 : 역사교과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국제노동기구 활동】

5. 89차 ILO 총회 참석 (6.4-6.11)

장소 : 스위스 제네바

참석 : 정진성 공동대표

내용 : 노동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위안부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채택하였으나, 사용자위원회에서 일본정부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결국 총회 안건으로 상정 무산

6. 2002년도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준비

7. 2000년법정 최종판결을 위한 국제실행위원회:

일시 및 장소 : 2.22-23, 정대협 교육관,

참석 : 필리핀(인다이 사호르), 일본(마쓰이 야요리, 나카하라 미찌코, 루스코 쇼지), 중국(소지량), 한국(윤정옥, 김윤옥, 정진성, 신혜수, 조시현, 양미강)

논의: 최종판결은 헤이그에서 5.24-25 혹은 5.22-23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인다이가 요청한 네덜란드 NOVIB 지원금 액수에 따라 행사규모를 결정한다. 만약 NOVIB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뉴욕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진행하기로 하다.

▶생존자복지위원회(위원장 : 김신실)

1. 위로사업 및 문화사업

- 국회도서관, 일본교과서 왜곡관련 전시회 참여

일 시 : 6.20일(수) 오후 2시

장 소 : 국회 도서관

참 석 : 이용수, 김은례, 문필기, 이용녀, 황금주 할머니 참석,
김신실 위원장, 양미강 총무, 진현정 간사

내 용 : 교과서 왜곡 관련한 사진 및 전시물 관람 및 이만섭 국회의장과 면담

- 할머니 봄소풍

일 시 : 5월26일(토)

장 소 : 서울 경마장

참 석 : 전체 40명(할머니 15명, 봉사자 13명, 실무자 12명)

내 용 : 경마장 공원 및 식물원 구경, 꽃마차 타기, 경마구경 및 레크레이션을 통해 앞으로 할머니들과 연결될 재가자원봉사자들과 할머니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할머니들에게 좋은 추억거리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 「할머니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가수 임상훈 씨 공연참석

일 시 : 8월21일 4시, 7시

장 소 : 연강홀

참 석 : 황금주, 배죽간, 문필기, 김은례, 김복선, 윤순만

내 용 : 위안부문제를 주제로 노래 공연 및 운동후원 모금

2. 할머니 의료사업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협의회에서의 치과진료

일 시 : 1월부터-계속

내 용 : 전국단위로 소속되어 있는 건치회 의사들과 연락망을 통해 할머니들의 의치와 틀리, 치과 진료등을 돌보고 있다. 치과진료를 신청한 문필기, 황금주, 김복선, 김은례, 김윤심할머니 등은 진료와 함께 의치를 하셨으며, 충청도 지역에서는 김화선 할머니가 진료혜택을 받고 있다.

3. 할머니 장례식참여

- 황옥임 할머니 소천

일 시 : 7월8일

내 용 : 중계사회복지관에서 투병중이시던 할머니가 85세의 일기로 7월 8일 소천하여, 7월 10일 벽제화장터에서 장례식을 치뤘 김신실 생존자복지위원장과 양미강 총무가 동행함.

4. 재가봉사자 교육사업(공동모금회프로젝트)

- 1) 재가자원봉사자프로그램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가 워크샵

일 시 : 2001년 4월 3일 (화) 오후 2시

장 소 : 정대협 교육관

참 석 : 김신실, 양미강, 진현정, 이승훈(대구시민모임), 차혜영(대구시민모임),
정운숙(전주기살여)

내 용 : 재가 복지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 및 사업내용 소개, 지원내용과 지원내용에 따른
정산 및 보고 방법에 대하여 보고함, 각 단체에서의 할머니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 앞으로 지역 내에서 연결할 수 있는 할머니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앞으
로 각 단체가 긴밀한 연대 속에서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활동을 넓혀 갈 것을 결의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2) 재가자원봉사자 교육

제 1 강 위안부문제와 자원봉사자의 역할

일 시 : 4월 24일(화) 6시30분 정대협교육관

참 석 : 총13명 / 김신실, 양미강, 고혜정, 진현정 외 자원봉사자 9명

내 용 : 정대협 교육비디오 감상, 인사말(김신실생존자복지위원장), 사회(진현정간사) 위안부
문제와 자원봉사자의 역할(양미강)의 강연으로 이 사업의 취지와 앞으로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다.

제 2 강 노인의특성이해와 자원봉사자의 역할

일 시 : 4월 26일(목) 6시30분

참 석 : 총 14명 / 진현정, 이지예, 고혜정 외 자원봉사자 11명

내 용 : 강의(이지예 노인복지사), 자원봉사자들의 자아존중감 측정 및 욕구측정, 할머니들
의 욕구 읽어내기, 봉사자들의 방문에 대한 목표와 실행 평가방법, 노인들의 신체
적, 심리적 특성상 나타나는 성격이해, 자원봉사이유 의의할 사항

제 3 강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심리적특성과 자원봉사자의 역할

일 시 : 5월 2일(수) 6시30분

참 석 : 총14명 / 이철원, 고혜정, 진현정 장미라 외 자원봉사자 10명

내 용 : 강의(이철원 상담사),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심리적 피해 특성과 자원봉사자들의
유의 사항교육

제 4 강 자원봉사자의 사례발표 및 방문기록에 관하여

일 시 : 5월 3일(목) 6시30분

참 석 : 총 14명 / 김신실, 양미강, 고혜정, 진현정, 장미라 외 자원봉사자 9명

내 용 : 위안부피해자들의 현황 및 국민기금문제(김신실), 위안부할머니들의 방문사례와 유
의해야 할 사항(고혜정) 방문기록방법 및 기록사례(진현정)

자원봉사자 보강교육 및 모임

2강 보강 : (5월10일) 김소연, 신윤영, 이주영(3명) 정대협교육관에서 교육

4강 보강 : (5월17일) 이은란, 박은희 (2명) 찻집 로비에서 교육

3) 대구시민모임 재가봉사자교육

일 시 : 4월 27일, 5월2일,4일,7일(4회)

내 용 : 위안부문제 및 상담방법, 방문사례와 방문 기록 방법 등 교육하였고 교육자는 11명 정도였다. 주로 회원들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차후 더 충원될 교육자들에 대한 강연의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계획하고 있다.

4) 전주기독살림여성회 재가봉사자교육

일 시 : 5월 19일(토)

참 석 : 전주회원 11명, 진현정, 이지예

내 용 : 위안부문제와 재가자원봉사사업의 취지(진현정), 재가자원봉사자교육(이지예), 자원봉사자들의 자아존중감 측정 및 욕구측정, 할머니들의 욕구 읽어내기, 봉사자들의 방문에 대한 목표와 실행 평가방법,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상 나타나는 성격 이해, 자원봉사시 유의할 사항 등

5. 방문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젝트)

1) 부천지역 할머니방문(박복선, 강순애, 문부전)

일 시 : 4월

방문자 : 김신실 생존자복지위원장, 진현정 간사

내 용 : 문부전할머니 1년이상 대상병원에서 요양중, 의식도 많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으나, 여전히 중풍으로 몸을 가누지는 못하는 상태였다. 박복선, 강순애할머니 아파트에서 근래생활 안부를 묻고 방문함

2) 김운심 할머니 병문안

일 시 : 5월12일(토), 14일(월) 15일(화)

방문자 : 김신실 생존자복지위원장, 진현정 간사

내 용 : 혈압으로 12일 갑자기 쓰러지고, 심한 구토증으로 근처호림병원에 입원 14일 중앙병원으로 옮긴 후, 종합진단을 맡기 위해 15일부터 17일까지 입원실로 옮겨 검사 후 퇴원하심, 결과는 29일에 나오며, 상태는 많이 좋아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관절이 많이 아픈 상태임.

3) 심미자 할머니 병문안

일 시 : 5월 14일(월)

방문자 : 김신실 생존자복지위원장

내 용 : 심한 피부병으로 가려움증으로 인해 입원을 알아보고 있으나 대기 중, 성남시의 병원에 통원치료 중에 있었다.

4) 김영순 할머니 병문안 및 방문

일 시 : 5월 19일(토)

방문자 : 김신실위원장

내 용 :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셔서, 오래간만에 방문하였다. 건강상태는 여전하심, 간암치료로 중앙병원에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을 예정하고 계심

5) 나눔의 집 방문

일 시 : 5월 4일(금)

방문자 : 김신실, 양미강, 오지연, 고미령, 정은정, 진현정, 이지예, 수녀님1명

내 용 : 나눔의 집 실무자 변동과 더불어 생존자 복지 사업에 대한 논의 겸, 건강이 좋지 못해 오랫동안 못 뵈는 할머니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방문함

6) 등촌동할머니방문(김복선, 배죽간, 김은례, 문필기, 김운심)

일 시 : 6월 4일(월) 10시-4시까지

방문자 : 김신실, 진현정

내 용 : 김복선 할머니 방광의 염증으로 통원치료중이었으며, 배죽간할머니 치매와 우울증으로 중앙병원에서 약을 먹고 계심, 문필기 할머니는 증손주와 손자며느리와 함께 생활하심, 김은례할머니 옆집의 정신이상자로 인해 힘들어하심 아파트이전을 알아보고 있는 중, 김운심할머니 노인복지관을 자주 이용하시고 계심

7) 황옥림, 안법순 할머니 방문

일 시 : 6월 5일(화) 11시-2시

방문자 : 김신실, 진현정, 원미희

내 용 : 중풍 및 치매노인 수용중인 중계복지관에 황옥림할머니가 요양중이며, 가끔 시동생과 가족들이 방문하고 있었다. 황옥림 할머니는 중풍과 치매가 심하여 매우 마르고, 거동이 불편하여 의사전달이 힘든 상태였다. 안법순 할머니는 방문시에 자원봉사원회씨와 연결

8) 황금자, 하점련할머니 방문

일 시 : 6월 6일(수)

방문자 : 김신실 생존자 복지위원장

내 용 : 황금자 할머니의 정서적불안이 심한 편, 하점련할머니 근처 복지관 활동으로 편안하게 생활하고 계셨음.

9) 최갑순 할머니

일 시 : 7월 20일

방문자 : 김신실 위원장, 진현정 간사

내 용 : 수해로 인해 집이 허물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 주거환경이 매우 여악한 상태였고, 수해로 할머니가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지갑에 넣고 다니던 모든 돈도 수해로 잃은 상태였다. 이로 할머니가 정신적인 피해가 크신 것 같았다.

10) 이귀분 할머니

일 시 : 8월 7일(화)

방문자 : 김신실 위원장, 양미강 총무

내 용 : 할머니의 갑작스런 중환자실 입원,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쪽에서 빠른시일내 병원방문을 할 것을 부탁하여, 김신실위원장과 양미강총무 방문. 할머니 조카가(본인은 친아들이라함) 사람이 할머니 병문안을 강하게 반대하여 만나지 못하고 들어옴, 후 장미라자원봉사의 방문으로 확인결과 할머니 건강이 호전됨

11) 자원봉사자들 할머니 방문

6월부터 월 2회 꾸준히 할머니 방문이 이루어 지고 있다.

방문자원봉사자 : 변계희(문필기), 이은란(김은례), 황선환(황금주), 김혜영(이용녀), 원미희(안법순), 김설하(이영순) 박은희(김연희), 이주용(김상희), 김소연(강순애), 정공례(최갑순할머니)신윤영(배죽간 예정)

할머니들과의 가까운 계기점을 위해 수요시위 참석: 신윤영, 김설하, 황선환, 김혜영, 이은란, 신윤영, 박은희등 시간되는애로 참석중)

6. 재가봉사자 관리 및 평가모임(공동모금회프로젝트)

1) 재가자원봉사 친목모임

일 시 : 4월 24일(화)

참석자 : 이은란, 김설하, 이주용, 김혜영, 변계희, 신윤영, 원미희, 박은희, 황선환

내 용 : 자원봉사자 제1강 교육후 자봉자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모임을 가짐, 서로 전공과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 교육 이 후 계속될 자원봉사의 의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mail을 통해 모임 내용 보내음)

2) 제1회 자원봉사 전체 평가 모임

일 시: 5월 3일(금)

참석자: 김신실위원장, 양미강총무, 고혜정소장, 진현정간사, 정은정간사, 변계희, 신윤영, 원미희, 황선환, 김설하, 김소연, 이주용, 김혜영

내 용: 전반기 자원봉사자 교육을 마친후, 다함께 식사를 하며 그간 느낌점과 앞으로의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

3) 1차 방문평가모임

일 시 : 5월 24일(목)

장 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자 : 김신실위원장, 진현정간사, 박은희, 변계희, 신윤영, 원미희, 황선환, 김설하, 김혜영, 이주용, 이은란

내 용 : 자봉자 모임가집-인터넷 카페 만드는 것 건의, 방문일정확인, 방문할머니확인, 26일 할머니와 마사회로 소풍가는 일정 소개, 만남 약속 등과 짝궁 확인,

4) 2차 평가모임

일 시 : 5월 26일(토)

장 소 : 서울역

내 용 : 할머니와 경마장 소풍후 느낀점 공유 카페 만들기 및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한 조직구성 부회장(원미희), 카페 운영자(이은란, 신윤영, 변계희), 총무(박은희), 서기(황선환), 연락자 (변계희)

5) 자원봉사자 커뮤니티 완성

일 시 : 6월 25일

인터넷주소 freechall.com/halmunihim '힘내라 할머니'로 등록되었음 관리자는 변계희 회

원등록 11명

6) 3차 방문평가모임 :

일 시 : 6월 7일 (목/저녁 7시)

장 소 : 종로

참석자 : 황선환, 이은란, 박은희, 원미희, 김설하, 신윤영, 진현정

내 용 : 할머니 연결된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소감 공유, 아직 연결 예정자들 일정확인 및 할머니 정보 공유함

7) 4차 방문평가모임

일 시 : 6월 22일(토/저녁5시)

장 소 : 등촌동에서 모임

참석자 : 변계희, 김설하, 이은란, 원미희, 황선환, 신윤영(6명)

내 용 : 문필기할머니 중손주 백일참석(6월22일)후 자원봉사자들모여 7월 2째주(미확정) 자원봉사자 자체 M.T 추진에 대해 논의 -추진자(변계희, 이은란) 할머니방문에 대한 평가모임 예정을 잡음

8) 5차 방문평가모임

일 시 : 7월7일(토) 3시

장 소 : 민들레영토

참석자 : 변계희, 김설하, 황선환, 이은란, 원미희, 박은희, 신윤영, 김혜영, 진현정

내 용 : 자원봉사자 8명과 진현정간사 정기모임을 통해 할머니방문사례평가를 가짐, 매주 첫째 주 토요일 신촌민들레영토에서 평가회함,

9) 6차 평가모임

일 시 : 8월4일(토) 3시

장 소 : 민들레영토

참석자 : 변계희, 김설하, 황선환, 이은란, 원미희, 박은희, 신윤영, 진현정

내 용 : 인권캠프 참석여부 점검, 8.15수요시위 및 13일 연강홀 공연참석자를 체크함, 7월 2 회 방문건에 대한 평가회를 가짐, 평가를 통해 앞으로 평가회때 교육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함

10) 7차 평가모임

일 시 : 8월15일(수)

장 소 : 종로

내 용 : 탐골공원시위 도우미로 활동 후, 시위를 마치고, 할머니들 차편까지 배웅, 추후 다시모여 시위 참석건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 모두 의미있는 815를 보내어 기뻐고, 행진과정에서 경찰들의 봉쇄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음

11) 재가자원봉사자 MT

일 시 : 7월14-15일(일) 1박2일

장 소 : 강촌

참석자: 변계희, 김설하, 황선환, 이은란, 박은희, 신윤영, 진현정간사

내 용: 앞으로 결집력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엠티를 감, 자원봉사자6명과 진현정 간사가 1박 2일로 참석하였고, 엠티를 통해 인간관계프로그램(2회) 및 강촌자전거기행을 가졌다.

12) 8차 자원봉사자 모임

일 시 : 8월 26일(일) 오후5시

장 소 : 정대협 사무실

참석자 : 변계희, 김설하, 신윤영, 황선환, 원미희, 진현정간사.

내 용 : 인권캠프 일정확인 및 프로그램진행 확인, 자원봉사자의 역할들과 담당할머니 확인, 공항에서 만나는 문제 등을 논의 함

- 9차 평가 모임

일 시 : 9월 8일(토) 오후3시

장 소 : 정대협 사무실

참석자 : 김신실위원장, 진현정간사, 원미희, 이은란, 박은희, 신윤영

내 용 : 인권캠프 후 평가모임으로 모임, 김신실위원장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성을 칭찬하며, 대신 할머니들의 자립성을 길러주기 위한 봉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 자원봉사자들은 캠프 참석에서의 할머니들을 만나 보람있었고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사전교육없이 들어가 느꼈던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 함

7. 인권캠프사업(공동모금회프로젝트)

1) 1차 할머니와 함께하는 인권캠프 준비를 위한 지역단체모임

일 시 : 7월30일(월) 저녁 8시

참석자 : 양미강, 진현정, 정운숙, 김경신, 차혜영, 박은희, 이지예,

협의내용 :

캠프장소는 제주도 감리교수양관으로 정한다.

항공비중 각 단체 실무자의 항공비는 각 단체에서 부담한다.

할머니 항공비는 정대협에서 부담하되, 할머니들에게 3만원의 회비를 받는다.

(무료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장소 및 식사 등의 협찬목록을 정하여, 협찬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및 진행을 위한 역할분담부분 등은 8월 21일(화)에 다시 모여 정한다.

2) 2차 할머니와 함께하는 인권캠프 준비를 위한 지역단체모임

일 시 : 8월21일(화)

장 소 : 정대협교육관

참석자 : 양미강, 진현정, 정운숙, 김경신, 차혜영, 이지예

내 용 : 인권캠프 참석자 점검, 장소 및 협찬 사항, 프로그램 일정 점검및 내용, 준비물, 진행에 따른 역할 담당에 대한 논의, 심리치료사업에 따른 대한 여한의사협회 한방치료 협조사항 점검함

3) 제2회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인권캠프」

주 제 : 아름다운 만남-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부제)

일 시 : 2001년 8월 30일(목) ~ 9월 2일(토), 2박3일

제주도로 출발 30일 오전9시30분 -->오전 10:00도착

서울로 출발 9월2일 오후4시5분 -->오후 5: 05 도착

장 소 : 제주도 감리교여선교회 100주년 기념 수양관

참가인원 : 50명(할머니 25명, 지역활동가 및 정대협 실행위원 15명, 자원봉사자 10명)

프로그램내용

	8/30일(목)	31(금)	9/1일(토)
오 전		▶프로그램3 (AB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프로그램4 지역별 그룹상담 무엇을 새롭게 채울 것인가 지역별 발표 풍선으로 뜻 모아 결의
오 후	▶ 프로그램1. 오리엔테이션 얼굴뜨기마음뜨기(이지예) 집단프로그램 (A조:이지예, B:박애선) 나의 바램 나누기	▶제주답사 중문해수욕장 구경 돌고래,바다사자쇼보기 여미지 관람 ▶ 도와주신 분들 초청 만찬회	
저녁	▶프로그램2 다함께 더당심(레크레이션) 집단프로그램(A,B조)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캠프화이어 촛불의식 소원달아 태우기 신나는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평 가 :

- 한해동안 할머니들의 건강상태가 많이 쇠해졌고, 앞으로 캠프프로그램에 있어 할머니들의 건강에 대한 고려가 더 치밀해야 한다.
- 두 조로 나뉘어 진행함에 따라 두조의 결과 양상이 다르게 나왔고, 할머니들의 집단상담의 방법들이 더욱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
- 자원봉사자들과 할머니들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 졌다.
- 할머니들에 따라서는 한이 풀린 것 같다. 제주도 바다가 너무 좋았다 돌고래가 좋았다는 평가가 나옴
- 어떤 프로그램이 보다 할머니에게 좋은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는 평가

8. 할머니 집단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여성부 프로젝트)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심리치료를 위한 방법론 개발 연구원삼

일 시 : 7월 30일 (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장 소 : 이화여대 동문회관 8층 소 회의실

참 석 : 총 16명

(김윤옥, 김신실, 양미강, 이지예, 박애선, 전우택, 이정현, 이수현, 서옥자, 박은희, 차혜영, 정운숙, 김경신, 진현정, 정은정, 신윤영)

내 용 : 제1부는 생존자복지현황과 문제제기(김신실), 운동선상에서 나타나는 할머니문제(양미강), 제2부는 종전후 계속되는 트라우마(양현아), 군위안부피해자들의 침묵과 후유증을 귀국이후의 삶을 중심으로(심영희) 논의하였다. 이어 전우택교수의 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여성주의상담시각에서 본 위안부할머니의 문제와 상담접근방법(박애선)을 발표하여 졸업토론을 통해 할머니심리치료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날의 워킹은 대체적으로 다각적인 할머니들의 문제와 현황들, 문제제기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추후 전문가그룹만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것을 결의

9. 할머니관련 정책 간담회

일 시: 7월4일(수) 3시

장 소: 정대협 교육관

참 석: 김윤옥, 윤정옥, 김신실, 정진성, 고혜정, 양미강, 진현정

내 용:

- 1) 연구소의 재가봉사자 프로그램은 정대협 프로젝트 지원에서는 제외하고, 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재가봉사자 프로그램은 연구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연구소는 연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2) 할머니 복지활동에 관해서, 대상 할머니 선정과 국민기금 받은 할머니에 관한 돌봄에 대해서는 정대협과 연구소는 통일된 원칙을 갖는다.
 - 국민기금에 반대하는 단체는 국민기금 받은 할머니들은 다르게 대우한다.
 - 할머니 진위 문제에 대해서는 정대협과 연구소가 공유하고, 진위가 밝혀지면 다르게 대우한다.
- 3) 중국할머니를 위한 종합지원대책(귀환, 방문,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단체들의 종합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10. 기타 할머니 행사

- 1) Middle Tennessee State University에서 황금주 할머니 증언

일 시: 3월 12일 오후7시

장 소: Middle Tennessee State University(James Union Building)

내 용: 미들 테네시주립대학의 이정화 영문학 교수는 3월에 개강된 “여성의 역사”강좌에서 특별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황금주 할머니를 초청하였다. 이 강좌는 700여명의 학생이 진지하게 경청하는 가운데 할머니증언이 이루어 졌고, 끝난 후에는 만찬회가 있었다. 이제까지 열었던 강좌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가한 이례가 없었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 강좌를 통해 처음 일본에 의한 전쟁범죄를 알게 되었다는 학생들의 고백과 학교신문을 통한 위안부 문제관련 기사가 강좌가 열리기 몇 주전부터 시작하여, 증언 후 며칠동안 연재되었다고 한다.

- 2) 문필기 할머니 증언

일 시: 5월31일(목) 10시

장 소: 제주대 자연과학대 건물 대강당

참석자: 40-50명, 제주여성특위위원회참석

내 용: 제주대 총여학생회 주최로 성폭력문제를 주제로 위안부문제관련 강연회를 잡음, 정대협 교육비디오 상영, 할머니증언, 정대협운동소개

- 3) 황금주 할머니 증언

일 시: 6월 2일(토) 10시

장 소: 한양대

내 용: 한총련 출범때 분과별 강연중 위안부문제강연회, 정대협 운동소개 및 황금주할머니

중언 각 대학 학생들 50명정도 참여

4) 김은레 할머니 증언

일 시 : 6월 2일(토) 4시

장 소 : 올림픽공원 피크닉장

내 용 :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초등학교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준비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규탄 행사에 김은레 할머니 인사말 전함

5) 문필기 할머니 노래 녹음: 8.13 공연을 위한 녹음

일 시 : 6월 12일(화) 2시

장 소 : 이상옥 스튜디오(삼성역)

내 용 : 자원봉사자 원미희씨 동행, 문필기할머니 2시간 30분 동안 노래녹음

-하반기 생존자복지 사업계획(9-12월)

1. 재가자원봉사자 교육 및 방문사업

【재가 자원봉사자 교육】

1) 재가자원봉사 집단상담프로그램 (1박2일)

- 진 행 : 이지예, 박예선

- 일 정 : 2001년 10월중 주말 이용

- 대상자 : 자원봉사10명,

(여성주의 상담에서 현실요법에 따른 집단상담을 통해, 할머니 재가 자원봉사 및 할머니 복지 담당 실무자들의 Want측정 및 그룹 다이내믹을 통해, 자원봉사의 역할과 의미를 되돌아 보고, 더욱 그룹의 힘을 결성한다.

2) 교육(안)

-일 정 : 10월 3째주-4째주

-내 용 :

일 시	강 의 내 용	시간
1주	① 노인치매 및 건강관리의 이해와 자원봉사자의 역할	2시간
2주	② 개별상담의 실제(노인에 대한 대화 및 상담 테크닉과 방법)과 사례정리 및 점검 방법	2시간
3주	③ 노인의 안마와 맛사지요법에 따른 몸의 history를 풀기	2시간
4주	④ 사진 및 비디오 찍기와 피해자 자료화와 정리방법	2시간

3) 재가자원봉사자 사례관리를 위한 정기평가모임

각 방문사례 발표 및 전문가의 사례별 평가회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역할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재가 자원봉사자 방문 및 단기방문자 사업

단기 방문예정-충청권할머니방문 계획(11월)

재가봉사자들의 정기 할머니 방문(9-12월)

3. 서울지역 할머니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예정

일 정 : 10월 8일, 15일, 22일, 29일(4회) 오전10시-오후4시

장 소 : 미정

진행자 : 박애선, 이지예,

4. 사업 평가 워크숍

목 적 : 그동안 진행해왔던 각 지역별 피해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진 반응과 결과들을 평가하여 내년을 위한 기초자료를 삼는다.

- 각 지역별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발표

- 내년을 위한 계획 수립

일 시 : 2001년 12월 7-8일(금-토) 1박2일 (예정)

장 소 : 서울 근교(예정)

참 석 : 총 30명(전문가 5명, 활동가 10명, 자원자 10명, 시도공무원 5명)

프로그램 :

[첫날]

오후 2:00-3:00 등록 및 접수

3:00-6:00 세션 1: 할머니 심리치료 사업에 대한 평가

3:00-4:00 할머니 심리치료, 어디까지 왔나? : 각 지역별 심리치료 사업에 대한 총괄적 평가와 전망

4:00-4:30 토론 1: 할머니의 심리상태를 중심으로

4:30-5:00 토론 2: 할머니 문제와 운동을 중심으로

5:00-6:00 질의응답 및 토론

6:00-7:30 저녁식사

7:30-10:30 세션 2: 향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향

7:30-8:00 발표 : 어떻게 피해자를 지원할 것인가?

8:00-9:30 분과토론

9:30-10:30 분과발표

[둘째날]

오전 8:00-9:00 아침식사

9:00-10:00 종합토의

10:00-12:00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의 실제

12:00-1:00 점심식사

1:00- 귀가

5. 2001년 생존자복지활동 자료집 제작

목차(안)

생존자 복지위원장 인사말

재가 봉사자 교육사업

방문사업소개

자원봉사관리 및 서울 자원봉사자 대화방 소개

할머니 위로회(봄소풍)프로그램

할머니와 함께 하는 인권캠프 프로그램

건강진료프로그램

할머니 집단상담 프로그램

돌아가신 할머니 추모회

장례식 참여

할머니 소식등

부록:

생존자 복지 사업 소개

생존자복지 연혁

자원봉사자 소감문, 방문일지 등

▶ 홍보출판위원회(위원장 : 최만자)

1.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보고서 준비중

- 목차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1. 발간사
 2. 준비과정
 - 2.1. 한국위원회 조직 및 구성, 주요논의 사항
 - 2.2. 국제실행위원회·판사단 조직 및 구성
 - 2.3. 각종 캠페인
 3. 본법정
 - 3.1. 일정 및 내용
 - 3.2. 행사스케치
 - 3.3. 남북공동기소장
 - 3.4. 판결문 1(동경)
 - 3.5. 판결문 2(헤이그)
 4. 평가
 5. 부록
-

-계획 : 10월 22일-23일의 헤이그 최종판결 후에 출판하기로 함

2. 진상규명 논문집 발간예정

-보고 : 8월 30일까지 원고를 마감하여, 현재 수집된 원고를 교정 중에 있음

-계획 : 1교를 마친 후, 출판사를 통하여 출판할 예정임

3. 법률논문집 발간예정

-보고 : 원고는 취합한 상태이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청탁한 상태임

-계획 : 원고가 수집되는 대로 교정 후 출판 가능

4. 증언집 4집 발간

-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4》라는 제목으로 2월 발간, 시판 중

5. 증언집 5집 발간 예정

-보고 : 정신대연구소와 '풀빛'출판사가 작업하고 있으며, 현재 출판사측에서 교정하고 있음

-계획 : 11월 경에 출판될 예정임

6. 정대협 소식지

-보고 : 지난 7월에 23호 한글소식지, 2호 일어소식지, 9호 영어소식지가 발간되어 발송됨

-계획 : 24호 소식지는 10월 헤이그 최종판결을 홍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질 예정임

7. 정대협 리플렛

-리플렛의 내용과 디자인은 완성되었으며 한글·영어·일어 세 언어로 제작될 예정임
(3000부 제작 예정)

8. 정대협 운동사

-현재 집필자들에게 원고청탁한 상태이며, 10월 중순까지 원고취합하여 출판을 준비할 예정

▶아시아연대위원회(위원장 : 윤순녀)

1. 일본 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일본방문

일시 : 2001.4.25-5.2

장소 : 일본 동경

참석 : 황금주 할머니, 김은례 할머니, 김윤옥 공동대표, 지은희 공동대표, 양미강 총무 총 5인

1) 국회의원과의 만남

일시 : 2001.4.26 오전 11시

장소 : 중의원회관

참석 : 정대협 5명, 바우넷제팬 2명(마쓰이 야요리, 니시노 루미코, 루스코 쇼지 등), 국회의
원 16명(사민당, 공산당, 민주당)

내용 : 할머니 두분이 증언과 일본을 방문한 이유를 설명, 국회의원들이 교과서문제에 적극
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요구하고, 김윤옥 공동대표가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정대협 요
청서를 낭독하였으며, 이날은 여성의원들의 참여가 많았고,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
들은 '위안부'문제에 대단히 호의적이고, 현재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불채택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 일본 문부과학성 항의방문

일시 : 2001.4.26 오후 2:30-3:30

장소 : 문부과학성 내 면담실

참석 : 정대협 관계자 및 할머니 5명, 일본국회의원 6명(시미즈 스미코 드), 上口孝之 교과서
검정조정전문관, 舟橋徹 초등중등교육교과서과 교과서 기획관

내용 : 김윤옥 공동대표가 문부성에 보내는 항의요청서 낭독하고, 황금주 할머니가 강하게
'위안부'문제가 역사교과서에 삭제된 것을 발언, 문부성 관리는 교과서 내용은 학습
지도요령에 의해 기술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도요령에 없으면 기술하라고 지시
할 수 없다. '위안부'문제는 학습지도요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발언.

3) 기자회견

일시 : 2001.4.26 오후 4시

장소 : 참의원 회관 회의실

참석 : 정대협 관계자 및 할머니 등 5명, 바우넷 제팬 마쓰이 야요리, 니시노 루미코

내용 : 김윤옥 상임대표가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경위와 현재까지의 활동에 대해서 지은희 공
동대표가 교과서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

4) 일본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시위

일시 : 2001.4.27 오전 9시반 - 오후 3시

장소 : 문부과학성 -> 중의원 회관 제2회관 앞

참석 : 정대협 관계자 및 할머니 5명, 일본 시민단체 등 총 100여명(사회: 마쓰이 야요리)

내용 : 문부과학성 앞에서 9시반부터 30분동안 수요시위 노란조끼와 현수막, 위안부 사진이 담긴 소형 플랑카드 2개 등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피켓 등으로 약 30여명이 길게 서 문부과학성에서 중의원 회관까지 이동하여 일렬로 착석하여 침묵시위를 진행하였으며, 시민당 당수가 격려차 찾아와 할머니들과 환담하였으며, 3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방문.

5) 일본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일시 : 2001.4.28 오후 1시 - 5시

장소 : 요츠야 소재, 유기이오스 천주교회 회의실

참석 : 정대협 관계자 3명, NCCJ, 가톨릭신문 기자, 어린이와 교과서 네트워크 21, 가톨릭 신부, 기독교 국제평화위원회, 교풍회, 필리핀 재판 지원회, 가와사키교회 등 25명

내용 : 김윤옥 상임대표가 인사의 말씀하고, 양미강 총무가 현재 교과서와 관련한 한국의 상황을 보고, 지은희 공동대표가 향후 대응방안과 일본측에 대한 제안

6) 일본 노동자 May Day 집회 참가 발언

일시 : 2001.5.1 오전 11시

장소 : 히비야 공원 야외음악당

참석 : 김윤옥 공동대표, 양미강 총무, 루스코 쇼지, 가와모토 아야(통역)

내용 : 일본 노동자들의 메이데이 집회에 교과서 문제를 중심으로 김윤옥 대표 5분 어필

7) 中島通子 변호사와의 만남

일시 : 2001.5.1 오후 2시

장소 : 변호사 사무실

참석 : 김윤옥 공동대표, 양미강 총무, 마쓰이 야요리, 루스코 쇼지, 가와모토 아야(통역)

내용 :

- 김윤옥 공동대표가 '위안부'문제로 망언을 한 사람을 일본 사법부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
-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는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위안부 피해자를 특정하는 방법의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
- 마쓰이 야요리는 특정여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정부에 공식신고하여 등록되었고, 정대협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므로 충분하다고 언급
- 이를 위해 명예훼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더 청취한 후 대처.

8) 역사교과서 왜곡 긴급집회, "역사왜곡, 여성별시의 새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라"

일시 : 2001.5.1 오후 6시반-9시반

장소 : 시부야 소재, 근로복지회관

참석 : 약 350여명

일정 : 기조발제/ 니시노 루미코, 발표/ 김윤옥 공동대표, 증언/ 황금주, 김은례 할머니, 어

필/ 북한의 성명서, 한국 YWCA, 발표 / 도이치 일본연구소 연구원, 현장의 소리 /
시의원, 국회의원, 교사

내용 :

- 일본측 발제자는 기초발제에서 역사교과서와 공민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 교과서들이 여성차별적이고 민족차별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
- 김윤옥 공동대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민족의 문제이자, 여성의 문제임을 밝히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간의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
- 도이치 일본연구소의 발표요지
- 1950년대 독일과 프랑스간의 교육에 관한 대화가 시작되었고, 국제교과서 연구소가 설립
- 1960-70년대 독일의 학교교육에서 나치 독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이 강조
- 1976년 독일교과서에 대한 프랑스의 26개의 수정요구가 있었다. 이때 독일의 반발을 받음
- 독일과 이스라엘 공동교육위원회가 형성되어 독일교과서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죄책과 책임을 강조하고 교과서의 의무항목으로 넣었다.
- 교과서 문제는 기억의 변천사이기도 하다. 현재 독일의 우익세력의 득세로 교과서가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의무교육에 인권과 반민족차별을 삽입하여 극우세력의 등장을 방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

일본 현장의 소리

- 도미자와 요시코 구의원은 보수계 의원들의 팜플렛에 몇가지 원칙이 적혀있는데, 첫째 새 역사 교과서 모임의 교과서를 사용할 것, 둘째 이것이 힘들 경우, 이 교과서에 가까운 내용의 교과서를 사용하게 할 것, 셋째 현재의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게 한다는 전략이다.
- 요코다 예즈코 시의원은 오카야마 현에서 새역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교원들에게 호응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우익의 비위를 거스리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언급.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교과서 채택 후 교과서를 전시하는데 학부형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시
- 일본의 여자교수는 새역사 교과서 모임에는 1800여명이 운집해있다. 그러나 우리 모임에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젠더의 시점에서 할머니들의 존재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

9) 전체적인 일본방문에 대한 평가

- 국회의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 일본의 시민단체들의 운동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각 지방에서 교과서 불채택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 정대협의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였고,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강한 도전을 받았다.
-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과 시위가 한국과 일본의 언론에 보도되어 교과서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교과서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연대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아시아 네트워크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

2. 교과서 관련한 아시아연대 긴급 집회 참석

일시 : 2001.6.9-6.13

장소 : 일본 동경

참석 : 강순애 할머니, 김윤옥 공동대표, 김신실 생존자복지위원장, 양미강 총무, 정은정 간사(이

상 정대협), 민족문제연구소(김민철), 전국역사교사모임(한기모), 경실련(윤경로), 전교조(최철호), 나눔의집(능광, 김순덕 할머니), 역사문제연구소(이신철), 한국노총 공공노조연맹(김숙진), 역사정의실천연대(조동환), 교과서 운동본부 사무처(장신), 새천년민주당(김희선의원), YMCA(김수규), KNCC(김동완) 총 18명

* 해외 참가자 : 필리핀(4명), 말레이시아(2명), 중국(3명), 인도네시아(2명), 대만(2명)

이번 아시아 연대회의 기간에는 아시아 연대회의 외에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워크21이 주관하는 교과서 관련집회와 세계 71개국에서 함께 하는 국제캠페인이 열렸다.

1) 아시아 연대회의 참가자를 위한 환영회

일시 : 2001.6.9 오후 6시

장소 : 제일 한국 YMCA 강당

참석 : 정대협 5명의 참가자를 비롯하여 한국의 교과서 운동본부, 아시아 각국의 참가자와 일본 참가자 등을 포함하여 약 70여명

내용 :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가한 각국의 대표들이 나와 참가자 소개를 하였으며, 자유롭게 일본 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각국의 상황들에 대해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다음날 열린 연대회의에 대해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 아시아 연대회의

일시 : 2001.6.10~11

장소 : 제일 한국 YMCA 지하 세미나실

내용 :

- 간단한 개회식에 이어 마쓰이야요리, 이시야마 히사오씨의 기조발제가 있었으며, 아시아 참가국 대표하여 정대협의 김윤옥 상임대표가 '후쇼샤 교과서는 아시아와 일본의 평화에 역행한다-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라는 기조발제를 하여 일본의 교과서 왜곡의 문제점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각국의 입장을 담아 대표로 발표를 함
- 일본 및 아시아 참가국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예정인 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의 김민철 교과서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활동보고를 하였으며, 일본정부의 입국거부로 참가하지 못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윤경로 경실련 운영위원장이 대독하고, 연대회의에 참가한 아시아 각국의 대표들은 북한 입국거부에 대해 외통부에 항의하기로 결의를 함.
- '위안부' 피해자 김순덕 할머니가 피해자 발언을 함.
- 저녁에 열린 참가자 그룹토론회에서는 4개 그룹으로 나뉘어 구체적인 실천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 토론회가 끝나고 아시아 참가국들만 모여 토론회의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에서는 연대회의 성명서에 담길 내용과 일본내 북한참가자 입국거부에 대한 입장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아시아 참가자의 이름으로 외통부에 항의하기로 함.
- 그룹토론 및 아시아 참가자들의 토론회가 끝난후 성명서 작성을 위한 모임이 진행되어 각국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대표들이 참석을 하였는데, 아시아 참가국을 대표해서 김윤옥 정대협 대표가 참석을 함.
- 둘째날 열린 연대회의는 전날 열린 그룹토론에 대한 발표를 하였으며 공동의 행동지침과 외통부에 보내는 항의문 등을 통과함.

3) '역사교과서 왜곡을 용서할 수 없다' 역사왜곡교과서 아시아 연대 긴급집회 행동계획

- 지역에서

- 교육위원회로의 운동 : 서명운동, 편지(엽서)쓰기
- 교과서전시회 :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적기, 「만드는 회」 교과서를 읽기 운동
- 지방의회 : 「만드는 회」 교과서 불채택 청원
- 채택과정의 공개 요구
- 교과서문제의 소규모 집회
- 교육현장에서
 - 교장이나 교사와의 대화
 - PTA에 문제제기 하기
 - 교직원과 시민과의 연대
- 전국적으로
 - 매스컴대책 : 신문에 전단지 광고 · 의견광고. 좋은 기사를 응원, 나쁜 기사에 항의
- 아시아 각 국에서
 - 매주 금요일 농성
 - 각 국에서 일본대사관에 항의
 - 자국정부에서 일본정부에 항의하도록 요청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연대
 - 아시아 공동 서명운동
 - 자매도시, 우호도시간 연대
 - E-mail로 정보전달
 - 동시사이버 캠페인
 - 홈페이지 작성
- 국제기관이나 세계
 - 유엔사회권규약이사회에 일본정부보고에의 카운터 레포트 제출(교육권)
 - 글로벌 NGO네트워크로 정보교환
-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역사교육을 확립하기 위하여
 - 젠더의 관점에서;
 - 여성운동과 교과서 운동의 연대
 - 모든 교과서에 위안 기술을 부활
 - 젠더의 관점에서부터 아시아 공통의 역사 교과서
 - 역사학자, 교육학자로서;
 - 국정교과서 등 자국의 역사를 재검토
- 역사교육의 국제협력
 - 아시아 각 국간의 생도, 학생, 학자의 교류(공동수업 등)
 - 타 아시아제국의 역사교과서를 참고한다
 - 각국교과서의 일본관련 기사에 대하여 심포지엄. 보고서
- 국제캠페인
 - 「만드는 회」 교과서지원 일본기업의 제품 불매 운동
 -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 한일협정 등 2개국 간의 협정을 재검토

4)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일시 : 2001.6.11 오후 3시

장소 : 중의원회관 회의실

참석 : 아시아 국가에서 참가한 연대회의 참가자 및 바우넷 제팬 마쓰이 야요리, 니시노 루미코, NCCJ

내용 :

- 아시아 참가국에서 각국의 활동 및 요청사항 등을 발언을 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전교조에서 참가한 최철호 실장이 발언을 함.
- 국회 김희선 의원이 한국의 국회의원 활동을 보고함.
-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
- 아시아 참가국들은 인간띠잇기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일본 관계자들과 기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짐

5) 문부과학성 인간띠잇기

일시 : 2001.6.11 오후 5시 - 오후 5시반

참석 : 한국에서 2진으로

장소 : 문부과학성 앞 출발한 40여명의 참가자와 아시아 연대회의 참가자, 교포를 비롯한 현지 참가자 등 전체 500여명

내용 :

- 문부과학성 앞에서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손에 손을 이은 인간띠잇기를 진행하여 경찰이 저지하고 있는 문부성 정면을 제외한 3면을 에워싼 성공적인 행사를 진행함.
- 한국에서 12일 열릴 국제캠페인 참가자 40여명이 결합한 가운데 60여명의 한국의 참가자들이 플랜카드와 손수건, 어깨띠 등을 이용하여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규탄하였으며, 정대협에서 참가한 할머니들의 발언이 있음.
- 참가자들이 준비해 온 다양한 시위물품을 이용하여 곳곳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규탄 30분간 시위를 벌였으며, 정대협에서는 할머니의 그림이 담긴 현수막 3종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알려냄
- 인간띠잇기 행사장 주변에서는 우익의 차량 40여대가 문부성 주변을 돌며 시위대열을 위협했음.

6) '역사교과서 왜곡을 용서할 수 없다' 역사왜곡교과서 아시아 연대 긴급 대중집회

일시 : 2001.6.11 오후 7시 - 9시반

장소 : 교육회관 대강연장

참석 : 아시아 연대회의 및 국제캠페인 참가자, 일본의 시민단체 참가자 등 1000여명

내용 : 1) 다카하시 데츠야

2) 마쓰이 야요리

3) 김운옥 등 각 영역의 발표자

7) 전체적인 일본방문에 대한 평가

-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상당수의 일본내 시민단체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았고, 이미 일본내에서는 불채택 국면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미 상당히 진행된 일본내 흐름을 볼 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한 결합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 아시아 연대회의의 성과로 일본교과서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 네트워크를 마련하자

는 것에 의견을 모아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법률위원회(위원장 : 조시현)

1. 진상규명을 위한 공청회

일시: 2001.4.24 오전 10시-12시

장소: 국회의원 의원회관

내용: 강제동원에 관한 진상규명법 초안에 관한 공청회

주최: 정대협, 태평양보추위,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국회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국회 인권정책연구회

참석: 김운옥 공동대표, 지은희 공동대표, 양미강 총무

- '일제하 강점피해에 관한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공청회

일시 : 2001년 4월 24일(화) 오전10~12시

장소 :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나라와문화를생각하는모임(국회연구단체), 인권정책연구회(국회연구단체)

일제강점기강제동원진상규명연대(민족문제연구소,역사문제연구소,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태평양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정 :

◎ 제 1 발제 : 일제하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에 있어서 강제의 성격에 관
한 연구 - 전기호 (경희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제 2 발제 :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 제안설명- 장완익 (변호사)

◎ 서면 발제 : 강제동원 조사현황과 이후의 과제에 대하여
김인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문학박사)

◎ 종합 토론 : 김원웅 (국회의원 - 한나라당)

이미경 (국회의원 - 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 - 민주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태평양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2. 법률위원회 1차 모임

일시: 2001.4.23 오후 7시

장소: 정대협 교육관

참석: 조시현, 장완익, 최봉태, 오정진, 최일숙, 김수정, 김운옥, 양미강

내용:

: 조직 구성/ 위원장 : 조시현, 입국금지 관련 : 최일숙,

한국정부 제소 검토: 장완익, 김수정, 최봉태

: 김창록 교수가 제안한 향후 법률위원회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① 한국법원예의 제소

② 법무부 입국금지 요청

③ 국회 특별법 제정 요청 : 최봉태 변호사의 현재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한 정보 공유

④ 히로시마 재판

3. 망언자 입국금지 관련 사항

: 위안부 관련 망언자를 한국정부에 입국금지 조치하는 내용을 최일숙 변호사가 정리하기로 하였으나, 미국 유학결정으로 일정이 다소 늦춰지고 최일숙 변호사님의 준비내용을 김수정 변호사가 인수받았으나 아직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4. 한일협정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입장표명서 요청 및 의견서 개진

: 미국 소송팀에서 요구한 한일협정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표명서 제출을 위해 먼저 정대협 차원에서 의견서를 요청했고, 외통부 장관면담 요청을 했으나 성사되지 못함. 대신 한국정부의 입장표명서가 7월 22일 미국 소송팀에게 전달. 한국정부의 입장표명서의 내용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정리가 됨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1. 이사회 조직

일시 : 2001년 7월 20일(금) 오후 6시

장소 : 연세대학교 상남 경영관 VIP룸

참석 : 김성재, 김신실, 김윤옥, 심영희, 오재식, 윤정옥, 지은희, 정진성

위임 : 이수성, 김혜원, 신혜수

구성 : 대외이사(오재식, 김성재, 심영희, 이수성), 정대협 파견이사(윤정옥, 김윤옥, 지은희, 정진성, 신혜수, 김신실, 김혜원), 해외이사(한정로, 이동우, 양영지)

조직 : 이사장: 윤정옥

부이사장: 오재식

감사: 정연순, 장완익 변호사

소장: 김윤옥

부소장: 정진성

2. 센터 사업 확정

1) 연구사업

【할머니 증언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

사업명 : 일본군 '위안부' 증언에 기초한 피해경험과 현재 생활에 대한 조사

기 간 : 2001. 7-12월

목 적 : 현재 피해자로 등록된 201명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 피해경험과 현재 생활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다른 피해국과 구별되는 한국의 피해양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상 전체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며, 이것은 그동안 본회가 발간해온 6권의 증언집과 아울러 피해자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의 성격을 가진다.

내 용 :

- 과거 피해경험과 현재 생활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 수거된 설문지를 항목화하고 편칭해서 통계프로그램(SPSS프로그램)을 돌린다. 나온 결과를 토대로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기대효과 :

-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한국의 피해자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피해국과 다른 일제에게 강점당했던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하게 할 것이다.
- 이번 기초 조사로 피해자들이 동원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

【한일여성 공동역사교재 편찬을 위한 공개심포지엄】

일시 : 2001.10.5(금)

장소 : 연세대 상남관

주최 : 한국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병설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일본 / 여성·전쟁·인권학회

내용 :

사회 : 김윤옥(전쟁과 여성인권센터 소장)

am 10:00-10:30 등록 및 개회행사

개회행사 (한국 / 윤정옥, 일본 / 시미즈 기요코)

am 10:30-12:30 일본측 발표

일본발표(1) : "천황제와 일본여성" (스즈키 유우코, 國士館大學 文學部講師)

일본발표(2) : "페미니즘과 일본군 '위안부'" (오오고시 아이코, 近畿大學教授)

질의응답

pm 12:30-14:00 점심식사

pm 14:00-17:00 한국측 발표 및 종합토론

한국발표(1) : "국군대 여성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신영숙, 서울여대연구원)

토론(1) :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한국발표(2) : "민족주의와 일본군 '위안부'문제" (정진성, 서울대 교수)

토론(2) : 양현아(연세대 강사)

전체토론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발족 국제심포지엄】

주제 : 전쟁범죄와 여성인권

일시 : 2001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날을 맞이하여

예산 : 1500만원(Global Women's For Fund 지원)

일정 : (안)

주제강연 / 전쟁범죄와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패트리샤 셀러스 (2000년법정 수석검사)

발제1 / 뉘렌베르그와 동경재판에서의 여성인권: 内海愛子

발제2 / 2000년법정과 여성인권: 미정

발제3 / 한국내 전쟁과 여성인권의 현장 - 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 미정

종합토론

2. 교육사업

[방문자 교육]

방문자 교육 (1) 서울지역가톨릭대학생연합회

일시 : 2001. 2. 16. 오후 1시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서울지역가톨릭대학생연합회 15명

내용 : 비디오 상영(끝나지 않은 이야기).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현재상황에 대한 강연

방문자 교육 (2) 예수살이 공동체

일시 : 2001. 2. 20 오전 11시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예수살이 공동체 5명

내용 : 강연 (일본군'위안부'문제의 과거·현재·미래)

방문자 교육 (3) 이화여성신학연구소 방문프로그램

일시 : 2001. 5. 1 (월) 오전 10시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이화여성신학연구소 프로그램에 참석한 40명의 아시아지역 기독교 여성지도자

내용 : 비디오 감상, 강연, 질의 및 응답

평가 : UMC와 이화여성신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아시아지역 기독교 여성지도자 그룹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한 부분으로 정대협 교육관을 방문하였다. 비디오를 감상하면서부터 눈물을 보이며 열심히 경청한 참가자들의 한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일본군'위안부'해결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여성들의 연대로 인해 이 문제해결이 앞당겨 질 것이라는 든든한 지원의 발언도 잊지 않았다.

방문자 교육 (4) 한일학생포럼 참가자

일시 : 2001. 5. 12 (토) 오전 10시 30분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한일학생포럼 20명

내용 : 비디오 감상, 강연, 질의 및 응답

평가 : 방문 전에 사전 교육을 하고 참가한 한일학생포럼은 듣고 있기 보다는 많은 질문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였다.

방문자 교육 (5) 인천정보통신고등학교

일시 : 2001. 5. 19 (토) 오전 10시 30분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인천정보통신고등학교 양성평등반 24명

내용 : 비디오 감상, 강연, 질의 및 응답

평가 : 특별활동시간에 양성평등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1-2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현재의 여성인권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방문자교육 (6) 중산고등학교 2학년

일시 : 2001.6.4(월) 오전 11시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중산고등학교 2학년 36명

내용 : 비디오 감상(끝나지 않은 이야기), 강연(일본군'위안부'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평가 : 전체분위기가 약간 무거워서 교육하기에 쉽지는 않았지만, 교육이 끝난 후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시물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

방문자 교육 (7) 인천여상

일시 : 2001.6.9(토) 오전 10시 30분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인천여상 양성평등반 43명

내용 : 비디오 감상(끝나지 않은 이야기), 강연(일본군'위안부'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평가 : 특별활동으로 방문교육을 신청한 것이어서 인지 더욱 진지하게 교육에 임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힘내라는 말과 친밀한 격려를 잊지 않았다.

방문자 교육 (8) 가천길 대학 미디어 방송학과

일시 : 2001.6.15(금) 오전 11시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가천길 대학 미디어 방송학과 4명

내용 : 비디오 감상(끝나지 않은 이야기), 강연

평가 : 일본군'위안부'문제로 다큐멘터리와 뮤직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았다고 방문하여서인지, 기초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고, 주로 질의 응답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방문자 교육 (9) 인천여상 2학년

일시 : 2001.6.23(토) 오전 10시 30분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인천여상 2학년 44명

내용 : 비디오 감상(끝나지 않은 이야기), 강연(일본군'위안부'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평가 : 선생님의 사전교육으로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했고, 적극적인 질문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할머니현황 운동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방문자 교육 (10) 열린학교 참가자 7명

일시 : 2001. 7.31(화)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이화외고 2명, 송곡여고2명, 문일고등학교 2명,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 1명.

내용 :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이 취재차 교육관을 방문하여서, 방문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일본 교과서도 문제이지만 한국 교과서에서도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방문자 교육 (11) 오끼나와 교직원

일시 : 2001. 8.1(수)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오끼나와 교직원과 그 가족 16명

내용 : 일본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평화여행'이란 제목으로 일제침략과 관련된 유적지와 단체를 방문하고 있었다. 가족들과 함께 정대협 교육관을 방문하여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와 '위안부'문제 해결에 서로의 역할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방문자 교육 (12) 자양중학교 3학년 4명

일시 : 2001.8.1(수)

장소 : 정대협 사무실

참석 : 자양중학교 3학년 이강식 외 3명

내용 : 방학과제로 방문했다.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였으며, 홈페이지와 선생님을 통해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많았다.

방문자 교육 (13) KSCF 방문

일시 : 2001.8.4(토)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KSCF 프로그램 참가자 일본인 13명, 한국 대학생 11명

내용 : 한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중 교과서 문제와 '위안부'문제를 알기 위해서 정대협 교육관을 방문하였다. 막연하게 알았던 것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되어서 문제해결이 앞당겨지길 바란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방문자 교육 (14) 일본가정교사연합

일시 : 2001. 8.6(월)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일본가정교사연합 회원16명

내용 : 비디오 자료를 통하여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되었다는 참가자가 많았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방문자 교육 (15) 시흥중학교 3학년

일시 : 2001. 8.11(토)

장소 : 정대협 사무실

참석 : 시흥중학교 3학년 3명

내용 : 방학 과제로 정대협을 방문하였고, 정대협 활동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였다.

방문자 교육 (16)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일시 : 2001. 8. 12(일)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청소년 공동체 희망 회원 14명

내용 : 청소년 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으며, 해마다 정대협 방문자 교육과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교육을 위해서도 사전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육이라기 보다는 토론회에 가까웠다.

방문자 교육 (17) 성심여고, 동북고등학교, 부천여고

일시 : 2001. 8.17(금)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성심여고11명, 동북고등학교 6명, 부천여고 5명

내용 : 방학 과제로 정대협을 방문하였으며, 한국 교과서에 '위안부'문제의 기록이 미비함을 지적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되어서, 하루 빨리 일본정부 사죄와 배상하기를 바란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방문자 교육 (18)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일시 : 2001. 8.22(수)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자원활동가 6명

내용 : 민우회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교육 후

수요시위에도 참여하였다.

방문자 교육 (19) 후쿠오카 왔다갔다 회

일시 : 2001. 8.22(수)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후쿠오카 왔다갔다 회 20명

내용 : 수요시위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관부 재관과 '위안부'문제,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자교육 (20) 아시아여성자료센터

일시 : 2001. 8. 29(수)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아시아여성자료센터 35명

내용 : 아시아여성자료센터는 매년 아시아의 한 나라를 택하여 그 나라의 여성운동단체들을 방문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 프로그램 중에 정대협을 방문하여 '위안부'문제에 대한 해결운동을 함께 해 나가는 것에 대한 교류회와 국내 '위안부'해결 운동의 활동에 대한 방문자 교육에 참여 하였다.

[외부 강연]

외부장연 (1) 거제 YMCA 초청 옥포 중학교

일시 : 2001. 5. 8 (월) 오전 11시

장소 : 옥포 중학교 강당

참석 : 옥포 중학교 1-2학년 400여명

내용 : 강연(일본군'위안부'문제와 일본 역사 교과서 개악문제)

평가 : 거제 YMCA가 진행하고 있는 「일본 역사교과서 개악 규탄대회」의 일환으로 강연회도 진행하게 되었다. 장소적인 제약으로 영상자료 없이 단지 강연만으로 이루어진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외부 강연 (2) 일본 愛知 阿사히 중학교

일시 : 2001. 5. 24 (목) 오후 8시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참석 : 아사히 중학교 3학년 27명+교사

내용 : 여성과 평화와 관련한 내용 강의

외부장연 (3) 양평 강하 중학교

일시 : 2001.6.21(목) 오후 2시 30분

장소 : 양평 강하 중학교 2학년 교실

참석 : 양평 강하 중학교 전교생 65명

내용 : 비디오 감상(끝나지 않은 이야기, 숨결), 강연(일본군'위안부'문제를 통한 인권교육)

평가 : 전직 여성의 전화 연합 실무자로 있던 도덕 선생님의 요청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다. 도덕 교과 과정 중 인권교육이 있어 이를 활용해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통해 인권교육을 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전교생이 65명이 작고 아담한 학교로서 전체 분위기가 화사하고 깨끗했

다. 학생들과 교사 사이에 거리감 없이 친밀해서 교육하기에 훨씬 편안했다. 교육이 끝나고 돌아온 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교육에 대한 감상을 적은 학생들이 몇 있었고, 방학 때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선생님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외부강연(4) 청주 야학

일시 : 2001.6.28(수) 오후 7시

장소 : 청주 성암 야학실

참석 : 학생30명(40-50대주부 및 아저씨)

내용 : 교육비디오상영 및 위안부운동소개, 역사교과서 문제들에 대한 강연

평가 : 70년대부터 이어온 성암야학교실은 중학교1학년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40여명의 학생들 주로 40-50대 주부들과 아저씨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었다. 모두 진지하게 수업에 임했고, 매월 1회 초청강좌로 사회문제에 관한 강연회를 열고 있었다. 짧은 시간이라 질문이 많았지만 서둘러 마치니라 아쉬움이 많았다.

[기획교육]

기획교육 (1) 올바른 교과서를 위한 한일연대 세미나

일시 : 2001. 3. 26 오후 5시 - 8시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23명

일본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워크21,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정신대연구소, 독도수호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사모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평화시민연대, 한국노총

내용 :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을 앞두고 한일연대로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기획교육 (2) 대학생 활동가 교육

일시 : 2001. 3. 31(토) 오후 2시-5시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12명

김미정(고려대), 김성은 · 양영미 · 이화자(갑신대), 이운미(전남대), 정수미(동아대)

최선영(경기대) 이현후 · 김성혜 · 김인경(서울신대), 류지연 · 장만덕(조선대)

내용 : 비디오감상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강연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쟁점), 2000년 학생법정 보고(동아대,조선대)

2001년 대학생 대상 사업에 대한 제안

3. 자료실 사업: 사이버 여성인권자료실 준비

[도메인 등록] : <http://www.k-comfortwomen.com>(2001. 8)

제작업체 : (주)한겨레 미디어넷

[전문가 위원회]

-1차 모임

일시 : 2001. 6. 15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정진성 공동대표, 김은식, 이철용, 최현삼, 양미강, 정은정

정대협에서 제작하려고 하는 사이버 여성인권자료실에 대한 목표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문서로 공유하고, online(기존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분석하고 새 매뉴얼을 확정하는 일)에서 진행할 일과 offline(정대협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의 자료를 정리하는 일)에서 진행할 일들을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다.

사이버 여성인권자료실 제작을 맡아줄 업체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은 결과 한겨레 미디어넷으로 결정하기로 하다.

컨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 기획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구성원은 영역별로 1-2명을 추천하여 합하는 것으로하기로 하다.

-2차 모임

일시 : 2001. 6. 26

장소 : 정대협 교육관

참석 : 정진성 공동대표, 김은식, 이성구, 이철용, 최현삼, 양미강, 정은정

사이버 여성인권 자료실 제작을 위해 기존의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 홈페이지 분석 및 새 매뉴얼 작성을 위한 토론에 들어갔다.

① 기존의 홈페이지의 메뉴를 단순화하고 정대협 사업에 특성화된(예를 들면, 국제영역이나, 2000년법정, 할머니 자료실) 것들은 별도의 란을 구성하기로 하다.

② 전자 도서관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정대협 소장도서외에 다른 곳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등록하여 출처를 밝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단행본부터 DB작업을하기로 하고 낱장자료는 전체 이미지 작업을 통해 정리하는 것으로 하다.

③ 사이버교육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교사그룹을 별도로 구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기로 하다.

-3차 모임

일시 : 2001. 9. 12

장소 : 인사동

참석 : 이성구, 설명환, 최종순, 정은정, 고미령

사이버교육실 제작을 위한 아이템 개발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할머니와 학생을 모델로 하는 캐릭터 개발과 단체명을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우선 진행하기로 하다. 사이버 자료실은 체험관 위주로 흥미를 유발시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로 하다.

[정대협 소장도서 분류 및 데이터 입력작업]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해 정대협 소장자료부터 정리하고 DB작업하는 것을 90% 이상 진행하고 아직은 전체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없지만, 간단한 목차기록으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정보를 줄 계획이고 향후 정보들을 더욱 제공할 것이다.

[개편 홈페이지 오픈] : 2001. 9. 22 오후 2시

[계획]

1) 사이버교육실 구축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기본으로 무력갈등 상황의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모델로 교육실을 구축하여 초·중고·대학생에 이르는 폭넓은 층을 확보하여 책에서 배우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이버교육실현을 이뤄낼 것이다.

2) 다양한 동영상 자료 제작 및 보관

오래된 할머니들의 증언이나 활동에 대한 녹화비디오가 시간을 거듭할수록 변질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로 변환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 30%정도 진척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각종행사와 수요시위 등 편집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

3) 관련 자료수집

소장하고 있지 못한 자료들의 목록을 검색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주로 국회도서관, 국립도서관, 인터넷을 이용해 자료수집을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1. 경과보고

3월 14일 운동본부 결성선언 및 기자회견

3월 24일 아시아 행동의 날(탑골공원)

-탑골공원과 일본 시부야 공원에서 공동 진행

-일본 '어린이와 교과서전국 네트 21'사무국장 타와라씨의 지지발언

3월 26일 올바른 교과서를 위한 한일 연대 세미나

3월 31일 역사교과서 관련 일본 해당 기관 사이버 시위

- 일본의 반응

· 산케이 신문은 사실을 통해 사이버 시위를 '업무방해·언론과괴 행위'로 규정하고 일본 및 한국관계기관에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

· 일본경찰 사이버 시위관련 대검 인터넷 범죄수사센터에 수사협조 요청

- 한국의 반응

· 일본의 요구로 현재 한국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연좌 집회 주동자 수십명의 명단을 이미 파악. 일본측에서 요구할 경우 업무방해혐의로 처벌하겠다는 입장 표명

4월 1일 서명운동 시작

4월 3일 일본에서 '위험한' 교과서 채택을 공식발표

일본역사교과서 개악내용 및 향후 활동보고에 대한 한일공동 기자회견(4시 30)

4월 4일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회'가 제출한 '위험한' 교과서 채택이 유력시되는 현 교육위원회 채택저지 반대서명운동 진행

4월 23일 상설연대기구로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출범

5월 16일 일본정부에 보내는 한국 국민의 공개 재수정 요구서한을 일본정부에 전달

6월 8일 일본정부의 '아시아연대회의', 북한대표단 입국 불허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 및 일본대사관 앞 항의시위

6월 9일 아시아연대회의 참가(일본 동경)

6월 12일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세계행동의 날(73개국 125개도시 동시개최)

6월 23일 제1차심포지엄 '일본의 역사왜곡과 한·일 교과서 바로잡기운동'

7월 6일 대표자회의(홍사단 강당)

7월 9일 '일본정부의 왜곡교과서 재수정 거부 규탄 및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7월 16일 '일본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신문광고 비용마련 모금캠페인'

8월 10일 제2차 심포지엄 '역사교육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제도 모색'

2. 조직

상임대표: 김윤옥(정대협 상임대표), 이수호(전교조 위원장), 서중석(역사문제연구소 소장)

집행위원회: 김민철(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양미강(대외협력위원회, 정대협 총무), 최철호(조직위원회, 전교조대외협력실장) 외

3. 주요사업

1) 불채택 서명운동

일시 : 2001. 4 - 8

대상 : 전국

내용 : '위험한' 교과서 채택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자매결연된 광역시·도 단위를 비

못해서 학교 등에서 불채택을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는 지난 7월 9일 기자회견후 일본대사관으로 전달하려다 경찰저지로 무산되었으나 자매결연지를 통한 성명서 채택과 다양한 교류는 커다란 성과를 만들었다.

2) 일본시민사회 호소를 위한 광고운동

일시 : 2001. 7. 16 - 8

내용 ; 채택최종기한을 앞두고 '위험한'교과서 불채택 호소를 일본 시민사회 직접 호소를 위한 광고비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에 돌입하여 8월에는 일본측의 광고일정으로 아사히 신문으로 9월 27일 동경 도심과 서부를 시작으로 10월 초 동부 그리고 10/13 외곽을 마지막으로 광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3) 아시아연대집회 참석

정대협 아시아연대위원회 활동보고에 포함

【사무처 보고】

1. 수요시위

1) 수요시위 진행(442차 - 475차)

3월부터 이슈가 되었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다양한 단체에서 수요시위에 결합하여 일본정부에 항의하는 시위에 동참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반대에 목소리를 내는데 특히 초중고대학교의 학생참여가 두드러진 2001년 상반기 수요시위였다.

2) 수요시위 장소이전(2001. 5. 14 / 광화문 교보빌딩 앞→일본대사관 앞)

지난 1999년 12월 1일자로 광화문으로 이전하여 진행되던 수요시위가 지난 5월 14일 일본대사관의 증축완료로 이전을 한 관계로 수요시위 장소가 이전되어 홍보차원으로 460차(2001.5.16), 461차(2001.5.23), 462차(2001.5.30)는 광화문과 중학동 일본대사관으로 이전하였으며, 463차(2001.6.13)부터는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었다.

3) 하반기 수요시위 주관단체 협조공문 발송(5월)

4) 종로경찰서 수요시위 불허 방침

7월 11일 : 제 467차 수요시위(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주관)

시위가 끝나갈 무렵 일장기 소각사건 발생하여 정대협측의 입장은 평화시위를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천명.

7월 18일 : 제 468차 수요시위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위원회 주관

평소보다 2배나 많이 배치되어 있던 전경들이 「나눔의 집」 차량을 둘러싸고 할머니들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항의하는 실무자들에게 467차 수요시위 때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로 더 이상 수요시위는 대사관 앞에서 진행될 수 없음을 전달.

7월 23일: 종로경찰에 수요시위 관련 최종 확인 : 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진행 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 표명

7월 25일: 제 469차 수요시위 : 민족문제연구소 주관

여전히 원천봉쇄 방침에 따라 참가한 할머니와 주관단체에서 참여한 학생을 비롯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가로막힘. 곳곳에서 경찰과 대치한 상황에서 시위가 진행.

8월 1일: 제 470차 수요시위 :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주관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것을 알고 경찰서에서 계속적으로 주관단체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며 주관단체가 학생들이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결국 집회당일 할머니들만 대사관 앞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며, 정대협 관계자들도 경찰들에 의해 저지당한 상태에서 2군데 장소에서 시위가 전개됨

8월 8일: 제 471차 수요시위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관

지속적으로 경찰 측에서는 할머니들과 정대협 관계자만이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날은 일찍 시위장으로 온 사람들과 할머니와 함께 시위를 전개함. 여전히 초·중·고·대학생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의 수요시위 참석을 저지당함

8월 22일: 제 473차 수요시위 :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주관

-예전처럼 대사관 앞에서 시위장소를 보장해주되 할머니와 정대협 관계자, 50명안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 12시에 가까워지자 대사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구를 막고 검문

8월 29일: 정대협 주관으로 일본의 아시아여성자료센터 한국방문단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나 12시에 임박하자 검문을 강화하여 대략 50명이 넘어서자 출입을 통제

9월 5일: 피스보트 한국참가단을 위해 평화시민연대에서 개최

-할머니와 관계자들은 시위장에 미리 도착하여 있었으나 조금 늦게 도착한 피스보트 관계자와 시위 주관단체의 참석이 봉쇄되어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할머니들과 미리 기다렸던 시위 참석자들이 봉쇄된 일본참가자가 대열을 형성하여 계속 대사관 앞으로의 진출을 시도함. 불가능하게 되어 시위를 진행하기로 하고 대표단을 선정하여 대사관의 관계자와의 면담을 성사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

9월 12일: 2달만에 일본대사관 앞의 불법검문이 없어지고 부분허용방침도 해제

5) 8·15기념시위 개최

[56주년 8·15기념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472차 정기수요시위와 고이즈미 일본총리 야스쿠니 신사공식참배 규탄 및 군국주의 부활저지를 위한 한일연대시위]

장소: 탑골공원

참석: 약 700여명(피해자할머니 20여분과 관계자포함)

■ 식전 문화공연(11:30-12:00)

■ 본행사 / 사회 : 양미강 정대협총무

1부 (12:00-12:40)

- 수요시위를 시작하며(김신실 정대협 생존자복지위원장)
- 경과보고 및 문화공연
- 할머니 발언 및 참가단체 연대발언
- 다함께 노래를

2부 (12:40-13:30)

- 시작발언【최근 일본동향을 중심으로】
-일본: 나카타미스노부(재한군인군속재판지원회) / 한국: 김은식(태평양보추위 사무국장)
- 피해자발언 및 문화공연
- 지지발언 및 참가단체 발언
- 성명서 낭독 및 집단퍼포먼스

■ 거리행진(탑골공원→인사동→일본대사관)

평가 : 8월 13일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따라 평화시위에서 규탄시위로 집회성격이 변경되었으며, 다행히 8·15통일행사로 집중되는 언론취재가 수요시위장소로 모여드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피해자 할머니와 관계자, 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포함하여 700여명(언론보도 1000명)이 집결한 가운데 비가 내리는 좋지않은 기후에서도 대열의 흐트러짐없이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선전물 마련이 돋보였으나 할머니들이 장시간 집회를 참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집회를 준비하는 실무자들이 물려든 보도기자에 대해 통제를 하는 것이 부족한 점으로 남아 전체 집회대열과 참석자를 잘 정리하는 것과 장시간 집회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집회의 과제로 남았다. 그리고 이날 일본대사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찰과 대치되어 결국 대사관으로 이동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계획】

1. 2001년 하반기 수요시위 개최

날 짜	회 수	주관 단체
9월 5일	475 차	평화시민연대
12일	476 차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일	477 차	경실련
26일	478 차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대구시민모임
10월 10일	479 차	독도수호대
17일	480 차	한신대학교 국제학부 일본학수업과 학생
24일	481 차	한국여성민우회
31일	482차	한국노총 국제부
11월 7일	483 차	기장여교역자회
14일	484 차	여신협/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1일	485 차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8일	486 차	정대협
12월 5일	487 차	한국여성단체연합
12일	488 차	정대협
19일	489 차	정대협
26일	490 차	정대협

2. 대외활동

- 한국여성대회(2000. 3. 4 정동 이벤트홀): 윤정옥 선생님 오늘의 여성운동상 수상축하0
- 일본역사교과서개악저지운동본부(2001. 3. 14 - 4. 23) 사무국 활동
- 이화여대사회봉사센터 자원활동가 교육(2001. 3 / 2001. 9)
- 역사교과서 왜곡관련 바우넷재팬을 비롯한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활동
- 일제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특별법 마련을 위한 연대활동(2001.4))
- 전쟁중지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평화침묵시위 참가(2001.9)

3. 상반기 사무처 평가회의

일시 : 2001. 7. 6 - 7

장소 : 경기도 양평

내용 : 상반기 전체 활동 및 자기 역할에 대한 평가 및 하반기 사업 점검

4. 정대협, 2001년 올해의 시민운동상 수상

일시: 2001.5.7

장소: 63빌딩

주최: 시민운동지원기금

상금: 500만원

참석: 지은희, 정진성 공동대표, 신혜수, 정태효 실행위원, 양미강 총무, 고미령 간사의 4명의 간사 등 참석

【공문 수 · 발신】

[공문발신]

- 1/20 2000년 민간단체 공익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 제출의 건 - 행정자치부 민감협력과
- 1/30 2000년 국제법정 서울 국제실행위원회 참석 요청의 건 -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선옥
- 2/ 5 후원에 대한 감사의 건 - 후원회원 및 회원단체
- 2/26 3·1절 기념, 일본교과서 개악반대에 대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건
- 3/ 7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개악저지운동본부 결성과 활동에 관한 건 - 정대협 실행위원회
- 3/ 9 일본역사교과서 개악움직임에 대한 일본대사관 항의방문 참석 건 - 이미경, 김원웅 의원
- 3/14 일본의 역사교과서 개악에 따른 남북공동성명서 작성 요청의 건 -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 3/15 일본군'위안부'기념관 건립을 위한 서울시장 면담요청의 건 - 서울시장
- 3/21 일본의 역사교과서 개악중단을 요청하는 건 - 일본 문부과학성 및 주한일본대사관
- 3/22 일본역사교과서개악저지를 위한 행동지침 실행협조건 - 정대협 회원단체 및 관련·기타 단체 대표
- 3/23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활동가 모임 - 각 대학의 총학생회와 여성모임
- 3/28 일본군'위안부'관련 보상입법 단일안 제출 환영의 건 - 민주당·공산당·사민당 대표
- 4/10 일본군'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한 재가자원봉사자 모집 건 - 정대협 회원단체 및 관련단체
- 4/11 일본 역사교과서 개악에 있어서 일본군'위안부'문제삭제에 따른 여성부의 강력대응 요청의 건 - 청와대·외교통상부·여성부
- 4/18 국제노동기구 총회 및 ICFTU 회의 참석을 위한 지원 요청의 건 - 한국노총 국제국
- 5/11 한국시민운동상 시상 및 제6차 아시아 연대회의에 관한 건 - 정대협 실행위원
- 5/16 정대협 2001년도 하반기 수요시위 주관 협조 요청의 건 - 회원단체 및 관련단체 수요시위 담당자
- 5/25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실미치료 사업 지원요청의 건 - 여성부
- 6/ 8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1965년 한일협정에 관한 결의의 건 - 외교통상부
- 6/20 2001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신청서 제출의 건 - 여성부 한명숙 장관
- 6/26 2001년 회비납부에 요청의 건 - 정대협 회원단체
- 6/27 1965년 한일협정과 관련한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 면담요청의 건 - 외교통상부
- 6/29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인권캠프"장소 지원요청의 건 - 감리교여성선교회 전국연합회
- 7/ 2 정신대 할머니 기념관 건립을 위한 서울시 사유지 기증 청원의 건 - 서울시 고건 시장
- 7/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병설 《전쟁과 여성 인권센터》이사회 이사 위촉의 건
- 7/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가위원 위촉의 건
- 7/ 2 사이버 여성인권 자료실을 위한 전문가 위원 위촉의 건

- 7/ 6 《나눔의 집》 해진 스님 사건에 관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입장 - VAWW-Net Japan 대표 마쓰이 야요리
- 7/ 6 2001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신청서 제출의 건 - 여성부 한명숙 장관
- 7/11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472차 815특별수요시위 행사 참여의 건 - 회원단체 및 협력단체
- 7/1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대사관 앞 정기수요시위에 관한 종로경찰서 과잉대응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의 건 - 종로경찰서 서장
- 7/20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해 일본시민사회 직접 호소를 위한 광고비 모금운동 동참 요청 및 일본군'위안부' 미국소송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한미(韓美)동시 연대시위 참석 요청 건 - 회원단체 및 관련단체 대표
- 7/20 일본군'위안부'미국소송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한미동시 연대시위 보도요청 건
- 7/24 정대협의 10년간의 평화적인 수요시위 보장을 촉구하며 연대를 요청하는 건 - 회원단체 및 관련단체
- 8/ 1 '위안부'할머니를 위한 헌정앨범 <위안부 할머니> 및 <할머니! 우리가 있잖아요!>공연 건 - 회원단체 및 관련단체
- 8/ 6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제2회 인권캠프" 지원요청의 건
- 8/ 6 815를 전후로 한 일본군'위안부'관련행사 보도자료
- 8/ 9 56주년 8·15기념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472차 정기 수요시위와 일본의 고이즈미총리 신사참배 반대 및 군국주의 부활저지를 위한 한일연대 평화시위 참여단체 제안의 건 - 각 단체 대표자
- 8/10 중국 거누 조선족 윤영식 씨, 위안소에서 자신을 낳았던 일본군'위안부'생모를 찾기 위한 보도협조 요청의 건 - 각 언론사, 방송사
- 8/23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병설 <전쟁과 여성인권 센터>건립 제안의 건 - 여성부장관
- 8/27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최종판결을 위한 참가요청의 건 -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 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 8/28 제2회 인권캠프 만찬 참가요청의 건 - 제주 지역 단체 및 교회, 기관
- 9/13 광장중학교 3학년 국사교과 연구수업 동영상 상영 협조요청 건 - 광장중학교 교장
- 9/13 헤이그 최종판결을 위한 준비사항 협의의 건 -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 9/20 한일 여성 공동교재 편찬을 위한 제1회 공개심포지엄 초대 건 - 회원단체 및 협력단체, 각 학회, 각 대학

[공문수신]

- 1/14 제 12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후보자 추천 요청의 건
- 1/31 200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 행정자치부
- 2/ 6 '한명숙 초애 여성부장관 취임 축하연' 초대의 건 - 한국여성단체연합
- 3/ 5 여성쉼터 개소예배시 광고 청탁의 건 -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 연합회
- 4/20 66회 정기총회를 위한 연합기관 보고서 제출 요청의 건 -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 4/25 24회 정기총회를 위한 연대단체 사업보고 협조의 건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4/25 제 6회 여성주간 유공자 추천의뢰 - 여성부

- 5/ 2 여성부정책자문위원회 제1대 위원위촉 동의의뢰 - 여성부
- 5/11 2001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공고 - 여성부
- 5/30 실무인력 지원 요청의 건 -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 6/ 5 6회 여성주간 기념식 참석자 명단제출 통보 협조 - 여성부
- 6/ 9 한국정신대연구소 개소식 초대 의 건 - 한국정신대연구소
- 6/20 제 6회 여성주간행사 홍보협조 요청 - 서울특별시
- 7/ 2 긴급 전체대표자회의 소집의 건 -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 7/10 '서울특별시 시유지 기증 청원'에 대한 회신 - 서울특별시
- 8/28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 여성부
- 9/ 5 일본역사교과서왜곡 관련 홍보자료 배포 - 여성부
- 9/18 전쟁중지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평화여성침묵시위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주요성명서】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사실 삭제·축소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재검정을 요구한다.

1. 지난 3월 29일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그 동안 문제가 되어온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최종승인하고 4월 3일 언론을 통해 전면공개하였다. 여러 차례 수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교과서로 알려졌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이하 새역모)의 교과서를 비롯한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왜곡된 역사인식에는 전혀 변함이 없이 형식적인 수정만을 가한 채 검정을 통과하였다.

2. 특별히 문제가 된 새역모의 교과서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침략전쟁이 아닌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제국주의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또한 한국병합,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탈의 반성도 없으며, 남경대학살에 대해서 부인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무시, 축소하며 심지어 삭제하여 역사적 사실자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새역모 교과서의 대표집필자인 사카모토 다카오는 최근 기고한 글에서, 명치유신이나 천황제 등과 같은 정통(orthodox)의 역사를 기록하는 교과서에 화장실의 역사나 일본의 범죄사 등을 기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화장실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위안부’ 역사 또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교과서에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피고 있는 것이다.

3. 1997년부터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기록된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그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의 운동성과이며, 동시에 피해자 할머니들과 아시아 피해국의 관련단체, 더 나아가 세계의 여성인권과 평화를 갈망하는 여성운동과 시민운동의 성과였다. 그러나 이번 최종확정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총 8종 중 3종만이 간략하게 ‘위안부’ 사실 자체를 기록하고 있을 뿐, 나머지 5종에는 ‘위안부’제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조차 기록되지 않거나 서술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일본교과서는 보편적인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는 일이며,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세계의 염원을 무시하는 일이다.

5. 피해자 할머니들이 올해까지 총 60분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면서까지 일본행 여권을 찾으시며, 일본정부의 사죄를 요구하시던 강덕경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우리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다. 1993년 일본정부가 이미 ‘위안부’제도에 대한 일본군의 직간접적인 간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이 문제를 삭제하거나 축소기술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하루빨리 일본의 문부성은 잘못된 교과서의 재검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설 것은 요구한다.

[요구사항]

1. 하루빨리 일본 문부성은 개악교과서의 재검정을 실시하라!
2. ‘위안부’문제를 축소/삭제한 일본교과서는 역사적사실인 ‘위안부’문제를 제대로 기록하라!
3. 올바른 역사서술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앞장서라!

(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김윤옥 지은희 정진성

**일본국회는 하루빨리 배상입법을 통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바로잡고
'위안부' 문제해결에 앞장서라**

1. '기억을 둘러싼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은 한일 양국간의 외교적 문제와 아시아 피해국들에게 깊은 상처를 심어주었다. 특히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여러 차례 수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에 전혀 변함없이 형식적인 수정을 가한 채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일본정부의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다.
2. 가장 '위험한' 교과서로 알려졌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이하 새역모)의 교과서의 대표집필자인 사카모토 다카오는 최근 기고한 글에서, 명치유신이나 천황제 등과 같은 정통(orthodox)의 역사를 기록하는 교과서에 화장실의 역사나 일본의 범죄사 등을 기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화장실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위안부' 역사 또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교과서에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피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식민지시대의 핵심적인 문제인 '위안부'의 역사가 화장실의 역사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논리에 의해 '위안부'역사가 삭제될 수 있는가? 현재 이러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지난 10년간 피해자 할머니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의 운동성과를 무시하고, 여성의 인권과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시민들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라 할 수 있다.
3. 엄연한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하거나 삭제한 일본의 교과서문제는 아직까지 일본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아시아 피해국과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사죄와 배상, 그리고 책임자 처벌 등 전후 책임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이다.
4. 이미 1992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 역시 매년 일본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2000년 12월 아시아 피해국 10개국의 관련단체들과 세계의 여성인권단체들은 일본 동경에서 개최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은 세계적인 판사단들로부터 전 일본국왕 히로히토와 일본정부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
5.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일본의 국회의원들의 입법화 추진과 양심적인 시민단체들과 법조인들의 소송재판운동은 아직도 일본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올해까지 총 60분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면서까지 일본행 여권을 찾으시며, 일본정부의 사죄를 요구하시던 강덕경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죄와 배상을 담은 특별법이 입법화되어 일본정부가 역사적 부채를 벗고 국제사회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일본국회는 이 세상에 평화와 정의가 살아숨쉴 수 있도록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주기를 요청한다.

(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김윤옥 지은희 정진성

2001년도 제2차 대표자회의 보고

◎ 일시: 2001년 9월 21일(금) 오후 3시

◎ 장소: 정대협 교육관(기사연 3층)

◎ 참석대상(가나다 순)

실행위원:

참석: 김운옥 상임대표, 지은희 공동대표, 김신실 생존자복지위원장,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 윤순녀 아시아연대위원장, 정태효 부서기, 양미강 총무

위임: 조시현 법률특별위원장, 최만자 홍보출판위원장, 한국염 서기, 고혜정 실행위원

회원단체:

참석: 기장여교역자회, 여성교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예장여교역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위임: 감리교여교역자회, 기독교민회, 기장여신도회, 이화민주동우회, 정신대연구소, 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불참: KNCC여성위원회, ZONTA, 감리교여선교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보고사항:

1. 사업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2. 회계보고는 수입부에 있어 유엔인권위원회 활동을 지원했던 APWLD 200만원을 사업비 모금항목에 삽입하고, 지출부에 국제활동에서 200만원을 지출하는 것을 명기하기로 하다.

◎ 결의사항:

1. 2000년법정 헤이그 최종판결에 대해 윤정옥 선생님이 뉴욕 공동대표단 회의를 끝내고 귀국하시는 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2000년법정 최종판결을 기자회견 방식으로 축소시키는 방식을 고려하기로 하다.
2. 정대협 회원단체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다. 각 회원단체의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게 재결의하도록 요청한다. - 수요시위 상하반기 각 1회씩, 연회비 15만원, 대표자회의 2회 참여
3. 실행위원회 12월 정책회의에서 실행위원의 임기를 논의하기로 하다.
4. 차기 대표자회의(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하다.

【알림】

1. 한일여성 공동역사교재 편찬을 위한 심포지엄

일시: 2001.10.5

장소: 연세대 상남관

2.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발족 국제심포지엄

일시: 2001.12.10(예정)

장소: 프레스센터(예정)

▶ 참가신청은 9월 27일까지 전화 365-4016, 혹은 mssjph@lycos.co.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내대 상부운영권 (365-7450)



한·일 여성 공동역사교재 편찬을 위한

제1회 공개심포지엄



- 일 시: 2001년 10월 5일(금) 오전10시~ 오후 5시
· 장 소: 연세대 상남관(로즈 우드룸)
· 참가비: 1만원(점심식사, 자료비 포함)

주제

한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병설 '전쟁과 여성인권 센터'
일본 여성·전쟁·인권학회

문 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전화 02-365-4016, 392-5252)
연세대 상남경영관(전화 02-365-7450)

초 대 합 니 다

안녕하십니까?

한 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지난 10년 간의 운동으로 축적된 자료들과 경험을 살려 더 심층적이고 다학문적인 연구작업, 자료수집, 교육을 위하여 '전쟁과 여성인권 센터'를 병설로 창립했습니다. 이에 일본의 여성사학자 스즈키 유우코(鈴木裕子)씨가 센터에게 소위 왜국교과서문제 대두에 즈음하여 '여성의 시각에서 한일여성 공동역사 교재 쓰기'를 제안해 왔고 이 제안이 발전되어 본 센터와 일본의 [여성·전쟁·인권] 학회와 공동사업으로 합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이 일의 출발을 위하여 우선 아래와 같이 양국 여성들의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개 심포지엄'을 가지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앞으로의 작업을 위한 비공개회의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공개심포지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장기간에 걸친 작업이 예상되는 공동역사 교재 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병설 '전쟁과 여성인권 센터'
소장 김 윤 옥

프로그램

사회 김윤옥(전쟁과 여성인권 센터 소장)

am 10:00-10:30 등록 및 개회행사

개회행사 (한국 윤정옥, 일본 시미즈 기요코)

10:30-12:30 일본측 발표

일본발표(1) "천황제와 일본여성" (스즈키 유우코, 國士館大學 文學部講師)

일본발표(2) "페미니즘과 일본군 '위안부'" (오오고시 아이코, 近畿大學教授)

질의응답

pm 12:30-14:00 점심식사

14:00-17:00 한국측 발표 및 종합토론

한국발표(1) "한국근대 여성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신영숙, 서울여대 연구원)

토 론(1)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한국발표(2) "민족주의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진성, 서울대 교수)

토 론(2) 양현아(연세대 강사)

전체토론